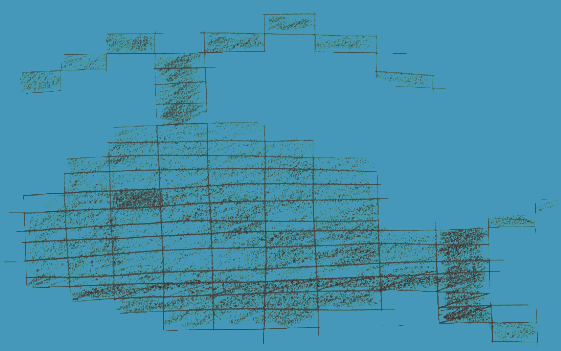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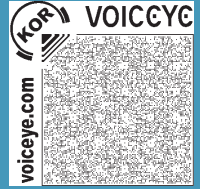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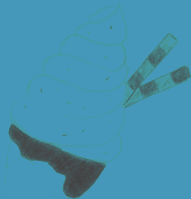
ISSN 2383-9872

밑 불 이 되고 불 씨 가 되 자

2018년 여름



노들바라기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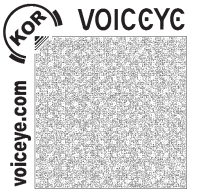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봄이 온다면, 당신도 와준다면”

2018년 4월 7일故 이종각 故 김호식 2주기를 기억하며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고병권의 비마이너] 목소리와 책임
- 06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 허신행
- 09 [장판 핫이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하여 * 김종욱
- 13 인권의 비와 자립생활의 나무사이, 공! * 김진수
- 15 광화문 대로를 기어가는 몸들의 이야기 * 박경석, 이형숙, 민아영, 김유미
- 24 [형님 한 말씀] 이동권 * 김명학
- 26 TFT 전문가 PKS를 만나다 * 최한별
- 29 <부식들> 그리고 다시 박경석 * 장선정

- 31 [노들아 안녕] 페스티벌과 노들음악대! 함께 불러오는 바람 * 화경, 무브
- 32 [노들아 안녕]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 이동호
- 33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 최창문
- 35 하루하루 살아가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한명희
- 37 김호식을 추모하며 * 고병권

- 40 저항으로 일구는 땅, 대항로 * 조아라
- 43 빛 진 마음에 벽돌을 놓습니다 * 박정숙
- 45 [교단일기] 6년 만에 다시 시작한 미술수업 * 정석환
- 47 노들피아드, 과거시험... 폭소수학대회? * 민아영
- 50 노들아학 발달장애인 낯활동 “우웨 ~ 우웨 ~ 에 갈 거야 ~~~~~” * 윤제원

- 52 백야 속의 한줄기 어둠 - CDC디자인학교 * 박시백
- 55 장애와 인권 별바닥행동 X 노란들판 * 진영인
- 56 동림과 성호의 좌충우돌 인권 교육 * 김동림 * 천성호
- 59 여기모여-우리들의 미투 * 최은화

- 62 끝나지 않은 2009년! * 탁영희
- 64 ‘때맞지 않음’의 ‘때맞음’ * 정창조
- 67 미셀 푸코와 함께 장애를 읽다 * 하금철
- 71 [노들책꽂이] ‘대단하지 않은’ 여행을 담은 대단한 이야기 * 이현아
- 74 [노들은 사랑을 싣고] 나와 나의 연결고리 * 정성룡, 이라나 * 인터뷰 김명학
- 77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노들에 유기농 쌀을 보내주는 한살림 일꾼들
- 87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를 말합니다.

제115호 2018-06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아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원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지원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안연주 정소영 민아영 송주훈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동송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임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닳도록 외친 것 같은 이 구호를 붙잡고 친절한 정권의 얼굴 앞에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차린 이 농성장은, 또 다시 전국의 단체들이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어느날 농성장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말없이 서있는 것이 일인 탓에 동네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8시가 넘으니 동네 아이들이 책가방을 매고 재잘거리며 농성장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어른들은 횡단보도에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종종 어른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중년의 손을 잡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 천막 뒤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안으로 쑥쑥 들어갔습니다. 시간대 별로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복지관에 가는 장애인들, 잘 짜인 사회의 모습 같단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마 전 읽은 책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때문인지, 지금 저 복지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장애인 가족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궁금했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치료실 대기번호가 100번, 200번이 훌쩍 넘어가는 현실. 작업치료 한번 받으려고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이 책은 전직 기자, 현직 장애아이 엄마로 자신을 소개하는 류승연 씨가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크게 달라진 자신의 삶,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농성장 바로 옆에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장애인부모들의 천막농성장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어딘가에 수용되지 않는 삶,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이번 〈노들바람〉에 실린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목소리와 책임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책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책임은 곧잘 추궁이나 처벌과 연결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책임’은 어린 시절 ‘사고’를 쳤을 때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의 이름이었다.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나이가 좀 더 든 후에 들었던 말도 비슷했다. ‘책임감을 가져라’거나 ‘책임 있게 행동해라’. 모두가 훈계를 받을 때 듣던 말이었다.

대학 시절, 책임이라는 말은 훨씬 비장했다. 어린 시절에는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길 때 썼던 말이 여기서는 반대로 쓰였다. 운동하던 선배들은 ‘책임진다’는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들은 자기 문제도 아닌 일까지 기꺼이 책임을 진 것처럼 말했다. 학생회 간부들은 ‘이번 투쟁을 책임진다는 자세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때로는 기층 민중의 투쟁을, 때로는 노동해방과 민족통일을 책임지자고 했다. 억압받는 이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 더 나아가 진정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모

르는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자처하며,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때 ‘책임진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지난번 영어 책을 읽다가 문득 ‘책임’, 즉 ‘responsibility’라는 말에 눈이 갔다. 이 말은 ‘response’(응답)이라는 말과 ‘ability’(할 수 있음)라는 말의 합성어다. 요컨대 ‘책임’을 글자 그대로 풀면 ‘응답할 수 있음’이 되는 것이다. 이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responsabilitas’에서 가져온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언어 형태가 다른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는 ‘Verantwortlichkeit’인데, 여기에도 ‘응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글자 그대로만 보자면 ‘책임’이란 ‘응답하기’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고, 또 그 권한만큼 일이 잘못되었을 때 추



공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이해한 ‘책임’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일깨운다. ‘응답한다’는 것은 그 전에 ‘말 걸어줌’이 있다는 뜻이다. ‘응답’은 일종의 ‘말하기’이지만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를 전제한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듣지 않고 말할 수는 있지만 듣지 않은 것을 응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책임은 ‘듣기’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들을 수 없는 존재는 책임질 수도 없다.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책임하다.

한 발 더 나아가보자. 책임이 ‘듣기’를 바탕으로 성립한다면,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을 통해 타자의 ‘말 건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타자가 목소리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태도이

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타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심지어 그에게는 목소리가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타자에게 책임 있게 다가간다는 것은 타자가 이미 내게 다가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타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만 내게 들리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란 단지 ‘들 수 있음’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함’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청취 능력이 아니라, 타자의 말을 들으려는 의지, 욕망, 노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목소리 없는 자들’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무책임한 태도인지를 깨닫게 한다. 책임 있는 행동이란 타자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가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할 때만 성립한다.

2008년 나는 책 형식의 잡지 『부커진 R』의 편집자였다. 당시 곳곳에서 추방된 대중들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1.5호’의 제호를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로 정했다. 그때 내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중요공원 구석에서 열린 농민 시위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시위대의 모습은 커녕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종로 쪽에 시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것이었는데도 시위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겨우겨우 봉쇄선을 넘어 들어가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경찰과 시위대의 싸움이 격화되어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바깥 거리는 한가롭고 가게들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안쪽 한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서 편집자의 말에 썼다. “온몸으로 울부짖어도 그 몸짓과 소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

이 있다”고.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 말은 자칫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대단한 헌신과 책임을 표현하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기에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마치 동정과 연민이 선의의 얼굴을 한 악덕인 것과 같다. 동정과 연민은 선행을 베풀기 전에 상대방을 동정어린 대상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대변하는 존재들을 ‘말할 수 없는 존재’, 즉 무능력한 자들로 간주한다.

장애운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 테일러(Sunaura Taylor)는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라는 시구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감상적인 기분을 만들어낸다: 목소리 없는 자들은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자들인 것이다.” 그러면 테일러는 인도 저술가이자 정치적 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의 지적을 인용했다. “‘목소리 없는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의로 침묵하게 되었거나(deliberately silenced), 듣지 않고 싶어 해서 들리지 않게 된(preferably unheard) 자들이 있을 뿐이다.”

아룬다티 로이의 말을 여러 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위 ‘목소리 없는 자들’이란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침묵’이라는 것.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로이는 단순한 무능력을 넘어선 의지를 폭로한 셈이다. ‘목소리 없는 자들’이란 목소리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 심지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존재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들리지 않는 자들’, 즉 ‘목소리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로 덮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목소리 듣지 못함’을 그들의 ‘목소리 내지 못함’으로 바꾸어 버리고(이것도 문제인데!), 자신들 목소리를 그들의 것으로 만든펬서 그들의 목소리에 덮어 쓰기를 실행한다(이것이야말로 끔찍한 문제다!). 이것은 그들을 이중의 침묵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무책임한 짓이다.

그리고 보니 나도 대학시절의 선배들만큼이나 위험한 말들, 무책임한 말들을 곧잘 했던 것 같다. 내 말이 과연 응답이었는지, 즉 나는 말을 들었는지,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주 돌아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들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말하기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괴로워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중 알아듣는 척하기도 했다. 물론 금세 들통 났다. 누구보다 학생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준다. 내가 더 이상은 무책임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짐을 끄는 짐승: 동물해방과 장애해방」 함께 읽기」 세미나 후기

허신행

노들야학의 과학 선생이다. 주업은 출판사 직원이지만, 활동지원사, 장애인권 강사 등 총 7가지의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학교 1학년, 한참 학생운동에 꽃혀서 여기저기 다닐 때 친구들은 내게 불만이 많았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니 꼭 알아야 한다”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진보 끈대, 운동권 끈대의 느낌이었을 거다. 이제는 내 마음도 약간 시들해지고 설렁설렁 살게 되면서, 그 전과 같은 긴장 관계는 더는 없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그런 긴장 관계가 다시금 생겼다. 아내는 나에게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해”라고 했고, 한 친구는 “좋은 얘기도 좀 적당히 해라.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내 입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움직여졌고 대화 말미에도 꼭 한 마디 덧붙이고야 말았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 때문이다. 사실 이 공부 모임

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동물권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장애인권 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장애와 동물이 무슨 상관이기에 엮어 놓았나 하는 궁금함과 약간은 있었다. 그때는 가볍게 신청한 세미나 하나가 나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세미나는 수나우라 테일러(Sunaura Taylor)라는 장애학자이자, 동물해방 운동가의 저서 『짐을 끄는 짐승: 동물해방과 장애해방』를 읽으면서 진행되었다.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번역을 하고 계신 이마즈 유리 선생님과 고병권 선생님의 도움으로 초벌 번역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전반부에는 세미나 참여자들의 발제를 듣고 책 이야기를 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권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세미나를 통해서 비장애중심

주의(ableism)와 인간중심주의가 어떻게 유사한 방식으로 타자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간과 동물, 장애인과 동물 사이의 관계 맺음 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고기’로 불리는 동물의 삶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육식을 해왔다. 세미나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조금도 없었다. ‘치느님’이라는 표현도 웃으며 해왔고, 체육대회 대신에 제육대회를 하는 연예인들의 이벤트에도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동물들의 삶과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서 무척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음과 감각이 달라져감을 느꼈다. 평소에 얕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라고 믿었던 나였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과 무지막지함은 이런 믿음을 가볍게 뛰어넘어버렸다.

닭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자면, 치킨의 바삭거리는 식감을 위해서 올해 4월 한 달 동안 8,000만 마리가 생명을 잃었다.¹⁾ 육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기용 닭은 세상에 태어나 30일을 산다. 그들은 ‘고기’라는 운명이 아니었다면 1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었다.

달걀을 위해 길러지는 산란계의 일생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서 수면을

방해 당하면서 끊임없이 알을 낳아야 한다. 평생이라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료들과 다닥다닥 붙어 마치 한 몸처럼 되어버린 철제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한다. 사료 값에 비해서 알 낳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가성비 없는 닭이라고 여겨져 살처분 된다. 그 기간이 대략 2년 정도다.

어찌 보면 2년을 살 수 있는 산란계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화한 병아리 중 수평아리는 바로 구분되어 기계에 갈려 비료가 된다. 기계에 갈리기 전에 마대에 담겨있는 동안 대부분 압사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렇게 다룰 수 없다. 한승태 작가의 이야기처럼 축산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²⁾ 닭과 병아리들은 생명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물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살기도 벅찬데 동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현실론이나 “동물의 고통이 문제면 식물은 고통을 못 느끼냐,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평화롭게 굶어 죽는 것이 낫겠다”는 비아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축장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모르겠는지, 어미와 강제로 떨어져우는 아기 돼지들의 비명에서 진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지, 배터리 케이지에서 나오고 싶어 발버둥 치는 닭의 모습에서 그들의 말을 진짜 ‘못’ 듣는 것인지 되문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2018년 4월 도축통계. 2017년 도축된 닭은 9억 3천 6백만 마리였으며, 복날이 있는 7월이면 해마다 1억 마리 이상의 닭이 희생된다.
2) 한승태, 『고기로 태어나서』, 시대의창, 2018.



고 싶다. 우리가 시설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에 눈감아왔듯이, 장애인의 이야기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흘려버렸듯이 또다시 외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의 일상과 관계되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원래 없었던 일처럼 편히 살고 싶은 마음 아닌가?

수나우라의 말대로 우리는 선택적으로 경청해왔다. 힘 있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힘없는 자의 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결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럴싸한 식품을 대면하게 되었다.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채식할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이견 아니지 않나, 이견 해도 너무나 것 아닌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다행히 노들은 최소한의 작은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식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급식을 먹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 채식은 계급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해결할 것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미약한 보탬이라도 되려는 긍정의 움직임이 너무 고맙다. 장애인운동도 모두가 안 될 거라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왔듯이, 동물해방 운동도 언젠가는 많은 것을 바꾸어내고 2018년의 대한민국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절로 기억하는 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이다.

힘없는 자의 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결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럴싸한 식품을 대면하게 되었다.

[장 판 핫이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하여

209명의 식발과 3천명의 삼보일배와 65일의 노숙농성을 마치고

김종욱

여기저기 참견하고 살다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를 덜컥 맡은 뒤로 할 일의 목록과 고민 속에 잠을 설치고 있다. 책 쓰는 일도 당분간은 작파한지라 에스에프 연애소설은 언제 쓸 수 있으려나 또 걱정이 많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나 존재와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모든 이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올해도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봄날 내내 거리에서 보내다가 훌쩍 여름을 맞았다. 큰 투쟁, 발달장애를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라는 요구다. 지난 3월 20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2일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 등 209명의 식발식, 4월 30일 식발자 만인소 및 삼천 명의 삼보일배 행진이 있었다. 식발식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앞 천막농성은 두 달을 넘겼다. (이 원고를 청와대 앞 농성천막에서 쓰고 있는 중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농성을 중단한다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회 결정이 났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성을 최대한 다할 것이라는 청와대 측의 답변을 들었으니, 6월 5일 농성 시작 65일만이다.)

이 땅에 장애운동이 시작되고 무엇 하나 투쟁으로 얻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번 투쟁도 여전한 결기와 열정으로 진행되어 결국엔 세상을 크게 돌파해내는 싸움의 기록이 될 것이다. 시민 권력으로 바꾼 세상, 시민의 힘으로 연 세상이기에 이전까지의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각성이 평

등과 조화를 향해 고양된다면 장애를 이유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따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 힘으로 집단행동과 노숙농성을 버텨왔고,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처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꺼냈을 때만 해도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이가 꽤 있었다. 작년엔 '이젠 국가가 호도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 있었을 때엔 모두 박수를 쳤으나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니 박수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장애 아이를 국가에다 떠맡기려는 거냐는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었다. 한걸음만 더 생각해보면 금세 납득이 갈 이야기인데, 마치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자기 자녀를 국가에다 무책임하게 떠넘겨놓고 홀가분하게 살기를 기도하기라도 한 듯이 소란했다.

치매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줘야 마땅하고, 그게 국가의 책무이다. 발달장애도 다르지 않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 아

빠, 가족이 감당하기에 벅겁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루 종일 내 아이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 그리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개별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나 존재와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모든 이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구도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지 않으니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속의 존재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 밖으로 내어놓지 않고 가정 안에서만 감당하라고 밀쳐두어선 안 된다. 질병이나 장애를 사회가 함께 짊어줘야 할 공동의 책무가 아니라 오직 가족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장애를 가진 이가 먼 외딴 곳이나, 가정 속으로 밀쳐지지 않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80%가 넘는다. (전체 장애인 약 34%, 지적장애인은 약 79%, 자폐성장애인은

87% 남짓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대략 73%, 자폐성장애인이 98%가 넘는다. 이 통계는 지금 이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은 오직 가족의 부담으로만 얽혀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98%의 자폐성장애인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법률에 그렇게 밝혀놓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여있다. 돌봄, 직업, 여가시간의 계획, 주거, 소득보장 그 어느 것도 사회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않는다. 아이의 장애를 온전히 부모가 감당해야 할 때,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은 여러 의미에서 위태롭다. 누구는 아이가 자신보다 하루 앞서거나 동시에 세상을 뜨기를 희망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하는 아이와 나 자신의 삶의 끝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주먹 쥐고 일어난 데는 배경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2018년도에 수립된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안에 단 85억 원이 책정된 것을 보고,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외면 받고,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 절망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투쟁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라는 주장에는 8개의 주요 요구가 담겼다.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확대, 주거지원 소득보장 등의 대책, 중증 중복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법적 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장애인의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 바깥으로 밀려지지 않을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를 갖추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 없을 때에도 아이는 여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에서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추웠던 지난 봄, 청와대 앞 천막은 바람에 흔들리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봄이 지날 무렵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천막 안은 찜통이 되었다. 낮에는 서울 지회의 회원들이, 밤에는 지방에서 새벽차로 올라온 회원들이 그 천막을 한결같이 가득 채웠다. 농성장이 차려지면 그 곳은 금세 장애 가족의 해방구가 되는 법이다. 천막 속에서 우리들은 밤새 요란하게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 아무 것도 보장받지 못할 때의 기억을 꺼냈다가, 그것을 투쟁으로 돌파한 얘기가 이어가며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았다.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청와대 근처의 거리마다 피켓을 들고 지키면서, 마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아이의 살 터전, 한 뼘의 땅을 지켜주는 일이라도 되는 듯이 엄숙하고 간

절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천막농성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렇긴 해도 장마철이 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여간 고역이 아니었을 테니, 그 전에 두 달 여의 노숙농성을 접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단기계획의 시행도 약속했다. 곧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의 복지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을 선언적으로 밝히게 되리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겨우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희망이 보이는 걸까. 우리가 꿈꾸는 평등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에 한 달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는 않더라도 크게 한 걸음은 나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한 걸음 내딛고 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한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꿈꿀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세상과 싸우고 또 돌파할 것이다. 머지않은 때에,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고한 투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리의 농성을 접고, 비바람 거센던 2018년 봄의 투쟁을 기록에 옮기며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이란 곳이 여전히 투쟁의 시간이요 장소라는 것을 안다. 삶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 덧붙이는 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매일 진행했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농성은 접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예산 확대와, 탈시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완전시행을 위한 집회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어가기로 하였다.)

인권의 비와 자립생활의 나무사이, 공! 노들 420 종로구에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생활의 나무를 심자!

김진수

에어컨을 사고 나서 싫었던 여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 받은 나를 식혀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뜨거운 여름, 서로에게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길!

장판에서 4월은 어느 달보다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우리에게 4월이 가장 뜨거운 이유는 4월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420.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동정과 시혜는 거부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차별에 맞서 싸우자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곳곳에서 저마다의 힘으로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주간에는 각 자치구별로 투쟁이 진행됩니다. 종로구에 속한 노들장애인야학과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420을 맞아 종로구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노들 420은 4월 5일 식목일에 맞추어 종로구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생활의 나무를 심자! 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들이 모여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종로구에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야학에서 낮 수업을 하는 인강원 분들이 현장수업으로 참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형숙 소장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소장님,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인 이상우 님, 그리고 박경석 고장샘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록달록 잎사귀 하나하나에 우리의 요구를 적어 매단 나무를 종로구청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의 의미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이유에서 보듯, 이 세상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나무가 없으면 세상이 지속될 수 없듯



이, 종로구에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립 생활 권리의 나무를 심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종로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뭇잎 마다 적힌 요구 안은 이렇습니다.

- 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 주택 마련**
- ②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③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④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개최**
- 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노들장애인야학 운영비 지원 확대**

3비가 내린 그 날. 작년 노들 420의 슬로건이 생각났습니다. '종로구 장애인 인권 기우제, 종로구에 장애

인 인권의 비를 내려라'라는 슬로건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생활의 나무는 태양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권의 비로 자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20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420을 4월 20일이 아닌 사이공으로 부릅니다. 사이공이란 소릴 말하고 들을 때면 그것은 어떤 날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는 주문처럼. 사이에 있던 벽을 거두자는 주문처럼. 사이에 있던 찌꺼기를 비우자는 주문처럼. 자연이 보여주듯이. 비와 나무는 막힘이 없이 서로 만나듯이. 사이의 차별을 공하게 하는 '사이공'. 종로구에 인권의 비와 자립생활의 나무가 막힘없이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날 때까지. 다 함께, 사이공!!

광화문 대로를 기어가는 몸들의 이야기

장애인용 오체투지? 육체투지? 장애투지?

2018년 4월 19일 / 전국 각지에서 온 활동가들이 청와대를 향해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곤 어느새 77명이라는 거대한 수의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아스팔트 차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투쟁을 오체투지라고 불렀다. 2018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기획한 투쟁이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노란들판의 여러 활동가들이 이 투쟁에 참가했다. 도로를 막고, 도로를 온몸으로 기어 행진하는 이 오체투지의 의미를 다뤄보고 싶었다. 노란들판의 오체투지 참가자 박경석, 김명학, 김탄진, 김진석, 이형숙, 서기현 ... 처음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었다. 하지만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이므로, 일단 가장 바쁜 사람 둘만 먼저 섭외하기로 했다. 그러다 결국엔 어찌다가 그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었다. 오체투지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비마이너'(www.beminor.com)에서 볼 수 있다.

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아침

참석 : 오체투지 참가자 박경석, 이형숙 / 편집위원 민아영, 김유미

정리 : 김유미 **사진** : 정택용

유미 우리가 이 기어가는 투쟁을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기어가는 투쟁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왜 오체투지가 되었을까?

경석 그냥 기어가는 투쟁이었는데, 기자 기자 하다가 누군가가 오체투지? 해서... 그리고 오체투지 책이 있잖아요. 일본인 그 사람 있잖아.

아영 그건 <오체불만족>. 오토다케.

경석 아. 오체불만족이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냥 기어 서 가서 '기는 투쟁' 이렇게 하기보다 투쟁의 명칭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체투지가 나온 게 아니라 기는 투쟁이니까 오체투지네? 했죠. 그럼 오체투지가 뭐지? 환경 쪽에서도 오체투지 하고, 노동 쪽에서도 오체투지 하고... 삼보일배 하는 오체투지. 예전에 한 신부님



도 환경 문제로 오체투지 해서 전국 돌면서 왔잖아요. 오.체.투.지. 불교 용어에서 전승된 거래요. 티벳 쪽에서.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이렇게 다섯 부분. 이 다섯 부분을 땅에다가 대는... 이게 불교적 의식이라요. 이런 건 비장애인식 오체투지고.

아영 우리는 다섯 부분이 아니고 온 몸을 땅에다 다 대던데요?

경석 아니지. 그건 보여지는 거고.

아영 우리는 계속 다 대면서... 우리가 말로 진짜 오체투지지.

형숙 온몸이야 온몸.

경석 아니 그건 당신들 해석이고.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그걸 땅에 대면서 가는 게 오체투지인 건데. 그럼 장애인들의 오체투지는 뭐냐?

형숙 우리는 육체투지였어. 대표님은 등까지 바닥에 다 대고.

경석 아니야. 오체투지가 아니라 온몸투지다. 몸체투지다. 이걸 장애인용 오체투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장애인들은 진짜 오체투지고. 그날 투쟁할 때 함께 연대한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니까 빛을 발하지 못했어.

아영 아... 했어?

경석 응 했어. 세 번 절하고 다했어. 우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오체투지를 하니깐 잘 못 본 거지. 이제 오체투지의 기본은 이렇게 바뀔 거야. 기는 게 오체투지다. 이게 불교의 정신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아영 불교에선 어떤 의미예요?

경석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 바로 오체투지. 부처님께 가면서. 불교적으로 오체투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잖아. 귀의하면서 그 신에게 공경하는...

유미 지금 막 검색을 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하하하.

아영 환경운동에서 오체투지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간으로서 자세를 낮추는 의미로. 근데 장애인투쟁에서 몸을 낮추고 그게... 저는 잘 ...

경석 너무 어렵게 하지마. 오체투지의 의미를 갖고 와서 한 거야. 환경운동에선 자연에 귀속한다, 자연에 공경을 뜻한다 그런 뜻이잖아. 우리는 그냥, 기는 거네? 어? 오체투지네? 이렇게 해서, 해석이 난무한 상황이야.

형숙 우리는 기어가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장연에서 오체투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 요즘은 이렇게 오체투지라고 하나보다 하고 했던 거지. 특별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기어가가지 우리가 뭐 오체투지야.

경석 기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장애인용 오체투지, 그렇게 하자는 거지.

아영 육체투지! 육체투지!

경석 육체투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형숙 용은 빼고 장애인 오체투지 이렇게 합시다.

경석 아이고.

아영 장애투지! 장애인용 투지.

경석 장애인용 오체투지!

형숙 박경석 대표님만 육체투지!

경석 설명을 한 건데 왜 나만 까!

형숙 까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제일 처절했어. 창조(그날의 활동지원사)가 정말 불쌍했어.

유미 굴리기.

유미 기는 게 공공장소에서, 대로에서 기는 거잖아. 길 때 감정적인 부대낌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숙 대표님도 여러 번 기지 않았어요?

형숙 수원에서도 기었고. 원래 기어가기 하면은 내 수준에 맞는 기어가기를 해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건 앉아서 영명어로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체

투지를 계속 얘기하니깐, 이번엔 엎드려서 기어야겠구나 싶었어요. 오체투지라니까 몸으로 해야 될 거 같잖아. 사람들이 나보고 왜 못하는데 엎어져서 갔나, 다른 사람처럼 앉아서 기어야 하지 않느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건 오체투지가 아니다, 오체투지는 온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뭐 어차피 앉아서 기든 엎드려서 기든, 몸이 운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전에 앉아서 기는 것도 어깨에 힘이 없어서 아팠어요. 이번엔 엎드려서 하니깐 내가 몸을 정말 못 가누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힘들지 몰랐지. 엎드려서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 명학형님 엄청 잘 기더라고. 저는 명학형님이 앉아있을 때 되게 중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는 거 보니까 저보다 낫더라고. 하하하.

경석 누구? 나?

형숙 명학형님이요. 대표님은 이미 포기했어. 그렇게 못 할 줄 몰랐어.

아영 저도 오체투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다가.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지원만 하지 그 상황을 못 겪어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제 몸을 누드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형숙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내 몸 다 보여주는 거구나. 좀만 잘못 하면 내 배 드러나지, 뭐 드러나지 그렇더라고.

아영 이게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해야 하나? 거기서부터 오는 감정들도 있을 거고. 또 너무 오래 기어보신 분들이라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숙 대표님은 이번에 거의 처음이라고 했잖아. 나는 대표님은 이번에 왜 기었는지 모르겠어. 서울역 이야 선전포고라고 했지만 이번엔 왜 기었어?

경석 한강대교 때는 나는 못 기었지. 아 그때 나는 집 회하면 나를 딱 집어서 연행해가던 시절이었거든. 그때는 굉장히 탄압이 심해서 어떤 불법행동이 시작되면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나를 잡아갔어. 나를 표적으로 잡아갔어. 박경석이란 잡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형숙 지금도 그렇지 않아?

경석 지금은 안 잡아가지 않아요. 연행 자체를 안 하잖아요. 요새는.

형숙 맞아. 벌금 때리지.

경석 전에는 나를 딱, 타겟으로 켈 먼저 연행해가던 시절이라서 한강대교 길 때는 토렸지. 근데 지금은 왜 했냐. 연행 안 하니까 한 거지. 이제 경찰 소환하고, 조사 받으라고 하겠지. 이제 이런 방식의 탄압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바로 현장에서 잡아서 48시간 살리고 조사하고 했는데, 요새는 채증해서 조사하고 이제는 경찰의 대응방식이 달라진 거지. 왜요?

유미 결국에는 안 잡혀가니까 기었다? 바로 안 잡혀가니까?

경석 꼭 안 잡혀가서 기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왜 안 기었냐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안 잡혀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언제 또 기겠어? 이제 나도 나이가 되고. 투쟁의 밑바닥 현장에선 벗어나서 이제 요양원으로 갈 시대가 되었으니 마지막의 마음대로.

형숙 잘하면 환갑 기념으로 한번 기겠네. 하긴 박명애 대표님은 환갑 넘었는데 기었어. 갑자기 슬퍼지네. 대표님 65세쯤이면...

경석 그래서 이 투쟁을, 여러분이 이 투쟁의 현장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들판에서서 외치는 목소리로서의 위치를 잘 선점해야 하는 거야. 세상은 점점 체제 내화되고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우리가 양 조금 늘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잖아? 항상 양이 늘어날 때는 또다시 제도 밖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들판에 서다!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다! 사회가 원이라고 치면, 옛날엔 다수의 장애인들이 다 변방에 있었어.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시설에 있었어. 근데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원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만큼 확장된 것이 완성이나?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될 때 또 바깥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진지가 원 안에 있다면 진지를, 원 밖으로 옮겨 나와야 되지. 원 밖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 거냐? 중증장애인의 육체 자체가 자본의 속도를 거부한다! 이것을 너무 희화화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게 아니다. 이 투쟁은 기쁨 슬픔 처절함이 녹아있는 종합적 예술이다. 이 종합적 예술은 바로 체제의 변화를 향한 중증장애인이 가진 무기다. 이들이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지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기자고 하면 또 잘 기잖아.

형숙 못 기는 걸 잘한다?

경석 못 기는 것 같은데, 못 기니까 몸이 처절한 거고. 이 몸이 보여주는 게 자본주의의 속도와...

아영 그럼 행위예술을 계속 한 거야?

경석 그렇지. 이걸 행위예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문화이고. 내 삶이 녹아있고 고통이 녹아있고. 표현이 있고 슬픔이 있고 투쟁이 있고 행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예요.

형숙 사실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이에요.

유미 어떻게?

형숙 우리가 두 시간 넘게 있었잖아요. 이걸 진짜 느낀다고요. 열도 났다가 분노도 있었고.

경석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형숙 외로움도 느꼈고.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가나. 박경석 대표님이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오기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경석 이런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투쟁을 통해서라도 세상의변화를...나의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형숙 앞에 이야기가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느꼈어. 정말 힘들고...

경석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저녁에 해가 딱 지더라고. 해가 딱 질 때 붉은 노을이 싹 질 때... 이렇게 드러누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느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막 고통이 다 끝나고 죽기 직전에, 이제 다 이뤘다 하면서 죽는 장면이 있어. 나도 수많은 투쟁을 했잖아. 청와대도 가고 철로도 내려가고. 나도 오체투지, 이 투쟁을 끝으로 아 이제 다 이뤘구나.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투쟁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투쟁에 죽어갔던 열사들...

형숙 저것도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지. 그 당시 진짜 그런 생각이 났어?

경석 노을을 보면서.

형숙 주변 사람들은 환장하겠는데.

아영 진짜 힘들었구나?

경석 그럴 수도 있고. 포만감일 수도 있고. 고통의 끝은 포만감.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내서 승리의 길로 간다. 이런 투쟁으로 동지들이 나와서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게 행복함이다. 잘 적어~



유미 행복감도 있었어요?

형숙 있었죠. 개인적으로 야휴. 그 놈의 오체투지 투쟁을 드디어 했구나!

경석 한번 생각해봐. 정명호 하고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봐. 그 친구들이 시설에 있으면 이런 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애? 하지. 어디서 하나? 방구석에서 하지.

유미 하루 종일 하지.

경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과의 투쟁에서 대한민국 한가운데 도로에 딱 누워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자존감이 넘치겠어. 기껏 집구석에 처박혀 누워있고, 시설에 처박혀서 누워 있어봐. 시설장 보면서 어~ 하고 있겠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투쟁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주는 거야. 인간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투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을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이걸 또 활동가들이 해야 돼. 이걸 놓치지 말자. 이걸 단순히 싫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연극이라고 생각해봐. 연극에서는 모든 걸 하잖아. 죽음도 있고, 죽음 속에서 슬프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방구석을 기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 드러눕는 것을 현실로 끌고 온 거야. 현실로 끌고 와서. 그리고 우리의 투쟁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걸, 판을 만드는 거야. 판을 기획한다는 것, 그것은 또 체제를 넘는 거야.

형숙 이게 1~20분이었다면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이다 보니까 경찰 구두발을 보면 열 받고. 방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거기에서 나는 정말 무기력하잖아. 거기서 할 게 뭐 있어. 기는 것 외에는. 바닥에서. 그래서 여러 생각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주는 거야. 인간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투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 났어. 화도 나다가 다양한 생각이 나더라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랬을 것 같더라고.

경석 우리가 가진 건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 없는 몸뚱어리 하나, 경쟁에 쓸모없는 몸뚱어리 하나.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한 거지. 그것이 세상을 넓힐 수 있으면. 우리 뒤에 있는 싸우지 못하는 저 뒤에 혼자서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있는 사람의 마음에 투쟁의 불씨 하나 심을 수 있다면. (급 노래 시작)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가야 할 저~ ...

유미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 훈련 혹은 생각이 안 따라오는 것 같은 게 있죠.

경석 불편하지?

유미 저만 해도 같이 있으면 슬프고 안 됐다는 느낌 계속 들고. 이거 몇 시간 하지? 불편해죽겠네 이런 생각 들고.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가까운 동료들에 대한 마음일 수 있는데... 기어가는 장애인의 신체가 안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훈련돼 있어요. 저기 명동에 가면 하루 종일 기어서, 오체투지 육체투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락을 제거하고 형태만 보면 광

장히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은 비장애인이 이 사건을 볼 때 다르게 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언론들은 이걸, 지금 이런 의미까지 담아서 해석할 수 있을까?

경석 적어도 JTBC나 오마이뉴스는 철학적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의미는 정확히 전달했지. 시혜적으로 나간 건 아니거든.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투쟁을 못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장애인의 불편한 시각 때문에 이것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나? 고려는 될 수 있어도 포기는 할 수 없는 투쟁이지 않느냐. 또 하나 기는 모습은 똑같다, 맞아. 명동에서 돈 벌기 위해서 기나, 여기서 이렇게 기나 똑같은 모습이지. 근데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 똑같은 장면이더라도 관계 속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 상황 속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명동에서, 지하철에서 기는 장면이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면서 권리를 보장해라 하면서 기는 건,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똑같애. 우리 걸 사진 찍어서 지하철에 옮겨놓으면 불쌍한 장애인이 되는 거지. 이런 익숙한 시각이 있겠지. 이걸 장애인만의 문제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뭐라고 했냐?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성자가 됐지. 명동에서 기는 장애인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똑같은 직업이잖아. 나는 관계 속에서 그 장면은 달

라질 거라고 보고. 더 본질적으로 가면 명동의 기는 장애인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면 우리는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투쟁이었다!

형숙 우리 센터에서 평가를 했는데 다시는 못하게 해야겠다. 너무 힘들었다.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예 같이 하면 좋은데 자기는 할 수 없는 위치고 하니깐 너무 힘들었다...

아영 이게 약간... 일상 속에서 활동할 때 보통 비장애인 활동가와 장애인 활동가의 역할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일상 활동에선 몸을 쓰는 일이 생기면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오체투지를 할 때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유미 없긴? 굴려야지. 잡아 땡기고.

경석 나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하나의 공정을 할 때 이 공정에 들어가는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일상 속에서 훈련이 안 돼 있어. 사진 빨리 빨리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친구한테도 보내고.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건데. 꼭 기어야 돼? 아니잖아. 기는 게 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다른 때는 많이 하잖아. 행진도 있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사우팅도 있고. 수많은 그 하나의 기는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기지 못한다고 해서. 다음엔 이걸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더 이 의미를 잘 전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이거를 밥 먹듯이 하자 이런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이 투쟁도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세상엔 물론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

이 있겠지. 우리가 진지를 가지고 세상을 넓혀 가는 것이, 어떤 운동적 단체보다 노란들판이 힘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견뎌온 힘이다. 노란들판을 만들어온, 견뎌온 힘이 언제나 진지로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재생산 되고 확장하고. 그래서 이 곳이 있으면 자본주의가 바뀌어갈 것이다. 노란들판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유미 우리가 그날 몇 시간 기었죠?

형숙 두 시간 반.

유미 몸은 어땠어요?

경석 뭐 그렇죠. 힘들어. 척수장애는 척수 장애의 아픔이 있어. 형숙 소장님은 지체장애잖아. 지체장애는 껌 값이야.

형숙 나는 여기 팔이 다 까지고. 안 쓰던 근육을 써서 너무 아파가지고 눕지를 못 했어요. 누우면, 몸이 달으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누웠다 앉았다 한 삼일을 그랬어요. 길 때 마지막에 몸에 감았던 거 다 풀고 나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운동을 안했구나 생각했어요. 그 정도 했다고 오한이 나더라고.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투쟁하는 운동 말고 몸을 쓰는 운동. 대표님은 아마 어디 상처가? 거기 바닥이 유난히 깔끄럽더라고. 우리가 길 줄 알고 그렇게 해봤나? 대표님은 상처가 났을 것 같아.

유미 어땠었어요?

경석 힘들었다 뭐 그런 건 기본이지. 기본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나는 고통을 느낄 때... 너무 아팠어... 어...? 일단 어깨가 안 올라가더라고. 엉덩이는 더 무거워진 것 같고. 나머지는 못 느끼니까. 못 느끼는 게 또 느끼는 사람에 대한 무감각의 고통이랄까. 무감각에 대한 두려움 이랄까.

형숙 땅에 끌리니까 피부가 다 빨갛게 돼있더라고. 대표님도 아마 그럴 거야.

유미 저는 어쨌든 이런 투쟁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투쟁은 맞는데, 굉장히 자학적인 형태인 느낌도 없지 않아서. 투쟁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경석 그래 아프잖아~ 그지~ 아프니까 즐겁게 노래도 하고 문화도 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 아니 뭐 안 아프고 해도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피하는 조건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지금 선택하지만 이후 이 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선물을 나눌 수 있다. 리프트에서 안 떨어져 죽어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활동보조를 24시간 만들고. 시설에서 나오게 하고. 등급제를 제대로 폐지해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 이 선물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고통이라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허허. 왜? (양쪽 옆 사람 손을 잡는다) 물론 단식하고 나도 삭발하는 거 싫어. 단식이 더 좋아.

유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형숙 저는 뭐 이래저래 했지만. 항상 전장엔 활동 비책들이 즐겁고 재밌다. 항상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유미 저랑 많이 다르시네요.

형숙 어떤데?

경석 이제 지겹겠지?

유미 지겹다기보다는 무서워요. 무섭고 걱정되고 겁나고...

아영 하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스케일의 남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멋있기도 한데...

유미 감당이 안 되지?

아영 아이고. 그래서 투쟁 한번하고 집에 오면 연극 끝나고 나서 허한 기분 알죠? 뭔가 굴 속에 앉아 있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형숙 만약 잘 안 됐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가 계획한 만큼 돼야 하는데, 안 되면 뭐가 잘못이었나 자책하게 되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경석 내가 투쟁하면서 느낀 거를... 내가 아침에 써왔지. 크. 이 투쟁이라는 것들이... 특히 장애인, 비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랑 같애. 그 연결의 사랑이 바로. 누가 끊을 수 있겠어? 그거 끊기면 죽는 거야. 그런 투쟁의 길 함께 감시다. 빨리 손 잡으세요. 창조야 사진 좀 찍어라.

창조 하나 둘 셋~

경석 투쟁의 끈을 놓지 말자!

유미 아영아 왜 답이 없어. 대답해야지. 어?

선물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고통이라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형님 한 말씀]

「이동권」

김명학

노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 시작 된 이동권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동권 투쟁을 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안 되어 날마다 살인 기계인 리프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지금은 좀 좋았잖아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길인가 봅니다. 이동권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배제 된 채 오늘도 살인 기계인 리프트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뿐인 것입니다. 살인 기계 리프트를 이용하다 다치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치고, 죽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현실... 너무나 속상 하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중증 장애인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제와 무관심, 잊혔도 마냥 없는 존재로 살아 가야 하는지, 언제 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 증명을 해야 하고, 확인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 어떻게 삶을 살아 가는데 매 순간 버모든 것들을 낚을 한데 들어 내 놓기 싫은 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 놓고, 확인을 받고 증명을 받았야 그나마 이 사회에서 생존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화나고, 서늘퍼 집니다. 이동권도 그렇다. 인간이라 면 모두가 안전 하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라도, 안전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이사회에선 이동조차 안 되고, 그걸 거역로 나와서 요구를 해야 만이 좀 듣는척을 할까 말까 하는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더 이상 이런 살인 기계인 리프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

나, 사후 이런 살인 기계인 리프트를 지금 당장 철거는 않고, 계속해서 이용을 하라고 만하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 중증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죽고, 다칠까 만이 정신을 차려겠는가. 이동권은 중증 장애인들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동권은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온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동권이고, 살인 기계인 리프트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인 것입니다. 지하철 타기 투쟁에서 목숨을 하는 사람들, 시간 이 없는데, 지하철 이동을 지연을 시킨다고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많이 나고, 야속하고 서운함이 많습니다. 지금 운행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는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가 중증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사물들을 알고나 있을까. 단 그 몇분,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험담과 욕설들이 난무 하고 있는지, 숨을 하기 짝이 없다.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하여 질기게 투쟁 하면서 반드시 이동권을 쟁취를 할 겁니다. 더 이상 살인 기계인 리프트로 인해 죽거나,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이동권을 포기 하지 않고,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 갈 겁니다.

TFT 전문가 PKS를 만나다

최한별

비마이너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고양이,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사주는 거 대환영♥ 만들어주는 건 더 환영♥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났다. 박경석 교장쌤.
이 인터뷰는 긴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세 달 전,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던 3월 어느날이었다.

뉴미 한벼리 아이원츄 아임 청탁 투 유. 노들바람에서 한별이에게 청탁을 하려고 해. TFT 전문가 PKS, 온갖 TFT 다 들어간 박경석 교장님. TFT 진행상황과... 박경석의 일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뭐 그런 글을.

한별 일상...파괴된거 아닙니까.

뉴미 응 그런...웃픈상황...잘 써줘 한벼리

요지는 이렇다. 5년에 걸친 길고 뜨거운 광화문 농성의 결실로 일궈낸 '민관협의회(Task Force Team, 줄여서 TFT)'들.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 무제폐지, 탈시설, 이동권 등등....TFT란 TFT엔 모두 들어가 있는 박경석 교장쌤. 원래도 이 사람의 '일상'에 온통 일본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여기에 TFT까지 겹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일까....하는 의문이 '원고청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터뷰는 그로부터 3달이나 흐른 6월 19일, 유리빌딩 4층에서 우연히 한 테이블에 급식을 먹기 위해 앉으면서야 극적으로 이뤄졌다. 세 달 만에 이뤄진, 그것도 우연히 가능했던 이 인터뷰는 나의 게으름과 건망증, 그리고 비마이너 기자의 바쁨을 조금 증명함과 동시에, 교장쌤의 살인적 스케줄을 많이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사람이 마치 '태평성대'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전 대통령들이랑 다른,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다. 인간적이고, 소통할 줄 알고, 따뜻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정책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TF를 잔뜩 구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니까. 교장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아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투쟁 빠르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우리 말 듣는 척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듣고 있고....그러니 우리는 대화도 하면서 투쟁도 조직해야 하는 거지."

교장쌤은 "TF가 다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본래 6월초에 계획되어 있던 회의를 정부 측에서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TF에서 유의미한 정책이 결정된 것도 없다. 등급제폐지 TF에 복지부가 들고 나온 '등급제 폐지안'은 복지부가 3차례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탈시설 TF 역시 지지부진하다. 모두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통 교장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비마이너 기자로서 인터뷰하는 것이다 보니, 갑자기 교장쌤 인터뷰 톤이 된다.

경석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이나 등급제 등 소수자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화를 이어 가면서도 한 쪽에서는 계속 투쟁해야 해요. 대화에 안 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이슈를 제기해야 하지.

한별 교장쌤 그런 딱딱한 '전략' 말구요, 이 지지부진한 정부를 향해 계속 대화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박경석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노들바람 독자분들은 박경석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경석 어? ㅎㅎ...난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즐거운 일이야. 할 게 없어서.. 이런 고민 외에는 고민이 별로 없어. 나처럼 단순무식한 사람은. 나는 어디 가서 쉬라고 해도 늘 어디를 점거할까...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한별 그거 약간 독재 아닙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약간 박정희 같은데?

경석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나중에 전장연 사람들이 다른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의 색대로 저항해나갈 수 있겠지. 지금은 나를 뽑아줬잖아 사람들이. 그럼 박경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 그래서야.

한별 응 그렇구나. 그래도 교장쌤 주어진 일을 오래 하려면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3시간? 4시간? 어젯밤에 분명 사람들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섯시에 저한테

자료 보내준 적도 있잖아요...진심 소름....

경석 아,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집에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벽만 쳐다보고 있어봐. 얼마나 일하는 게 소중한대구.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후,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보낸 세월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만화'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경석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치렀는데, 입관할 때 보니까 작년에 종필이(고 박종필 감독님) 입관하던 거야. 종필이도 서울대병원에서 장례했잖아. 입관 전에 그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와 종필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 나도 언젠가 저기 누울 텐데. 그때 누가 내 모습을 봐줄까. 그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어.

한별 음...그렇구나. 그래도요 교장쌤,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인간의 몸도 한정적이잖아요. 열심히도 좋지만... 잘 쉬는 것도 잘 싸우기 위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장쌤 정말 많이 걱정해요. 오래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 몸 안 살피고 일만 한다고요.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말을 듣더니 교장쌤이 갑자기 들다방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다. 컵을 내려 놓은 교장쌤 눈이 좀 빨갛던 것도 같고.... 잠시 탁자를 내려다보던 교장쌤이 다시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경석 그리고 보니 운동 시작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네. 내가 노는 법을 너무 못 배운 거 같아!

한별 와 나 정말 잘 가르쳐줄 수 있는데.

경석 그래? 배워야겠네.

한별 돈 내시면 가르쳐드릴게요^^

인터뷰는 또 30분 만에 끝났다. 교장쌤도 나도 다시 뻘뻘한 일정으로 되돌아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엄청나게 밀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늘 교장쌤을 속을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도 없이 별건 대낮에 교장쌤을 너무 많이 엿본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바쁘다. 교장쌤 말고도 노들야학 상근자들, 전장연 활동가들, 센터 활동가들... 정말 다들 얼마나 바쁜건! 우리 서로 많이 걱정해주자.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많이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의 걱정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진 못할지언정, 내 곁에 '동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 수는 있을 테니까.

<부싷돌> 그리고 다시 박경석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제가 자꾸만 '그 때를 아십니까?' 류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번도 같아요. 노들바람 이전에 <부싷돌>이라는 야학 소식지가 있었어요. 저에게 7, 8, 9, 10호가 있는데 소식지가 거의 무크지처럼 나올 때라 97년 8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소식이에요. 그 때나 지금이나 편집위원들이 원고 모으는 데 긴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도 같고, 김명학이 노들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같고, 박경석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도 같아요. (하하. 정말이에요. 20년 세월이 무색하죠.)

지금 노란들판에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시절 <부싷돌>은 편집 디자인을 제가 했어요. 편집을 직접 하면 제작비가 크게 내려간다고 해서 매킨토시에서 구동되던

'퀵'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꽤 열심히 했었죠. (궁금하시죠? ^^ 심지어 8호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표지를 컬러인쇄를 했네요. 절대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부싷돌>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순수하게 몰입하는 사람을 계산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박경석을 생각했죠.

지금은 마땅하다는 듯 수많은 이름이 찍히는 소식지 뒷면의 후원인 명단이지만 <부싷돌> 7호의 후원은 딱 두 곳이에요. 것도 맨날마다 쳐들어가다시피 방문하던 단골 밥집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7호를 찍고 98년부터 지로 후원모집을 시작



했지 싶은데 8호쯤에서 40명이 되었다가 10호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로 늘었더라고요. 짐작하시듯 후원인 명부를 늘어나게 한 가장 큰..... (뭐라고 해야 하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박경석의 뽀뽀함(이라 쓰고 절실함 이라고 이해할까요?)’이에요. 편집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10호에 있는 후원인의 명단을 보면 ‘박경석의 첫 사랑’(몹시 가슴 아프게 헤어졌다는) ‘박경석의 큰 형, 작은 형, 큰 누나, 여동생’, ‘박경석의 동창들’ 그리고 막 사회에 나갔지만 아직 낮은데서 박박 기고 있던 퇴임교사들이 대다수예요. 그 모든 이름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딱히 칭찬을 하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박경석은 이제 사회단체들 속에선 꽤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마 종로경찰서에서도 제법 주목하고 있을 거고, 맨날 여기저기 연대활동으로 바빠서 돈 버는 노란들판은 남의 자식 취급인데 뭐가 예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인간이 통과해야 할 터널과 쓰러진 장면들, 그리고 살을 찢고 나와야 하는 변태의 순간들을 가장 순명하게 받아들인 자로 박경석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겪어 낸 수많은 이별들과 그로 인해 그에게 왔을 고통과 눈물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유로 물러나거나 우회하지 않았던 그의 순수함과 책임감이 일관되게 힘을 발휘했던 세월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장년(?)이긴 했지만 백발이 성성한 노인(미안~)이 된 오늘까지 그의 말과 행동이 대체로 어긋남이 없고, 좀 정신없긴 해도 말투나 태도의 맥락도 거의 일정하다는 점을 어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이 들 때, ‘그만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그만해도 되는 위치에 있었거나, 그만 하고 가고

싶은 곳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거나, 이도저도 모두 놓고 싶은 순간을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소진의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이거나 하겠죠?

박경석은 아마도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그만’하거나 ‘잠시’ 쉬자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그를 원망하거나 따라가긴 쉬워도 누군가 그의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대체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이러나 싶으시죠? 옛그제 박경석을 만났어요. 전생애 고래였는지 어부였는지 역시 일관되게 ‘회’를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맘먹고 술 한잔하자더니 얼마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올 초부터 상근비를 받지 않고 있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전장연 벽돌기금으로 내고는 교통비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조금 취한 채 장꼴을 타고 귀가했어요. 뭐랄까 아주 조금 비감한 마음이 들었던.....(저도 취했었나봐요 ㅠㅠ)

저는, 박경석이 골골하며 백수하길 바라요.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할 수 있으면 좋고, 그 긴 세월동안 형태를 달리해 반복하고 있는 그의 꿈과 말들을 듣는 동안 마는 동안 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다 알아들었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는 오랜 친구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

힘을 내요. 박경석.

[노들아 안녕]

페스티벌과 노들음악대! 함께 불러오는 바람

~~~~~ 화경, 무브

하자작업장 학교 페스티벌



쌩쌩하던 늦겨울에 시작된 수업이 어느새 4개월이 지나 수업이 끝날 때 즈음이면 땀이 나는 계절까지! 벌써 한 학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노들야학과 하자작업장학교, 그리고 페스티벌과의 인연과 연대의 시간은 계속 되어 왔어요. 학기가 끝나도 앞으로의 시간은 계속 되겠지요?

처음 이 수업을 제안 받았을 때부터 설레는 동시에 참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질지, 몇 곡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한명희 선생님께서는 한동안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계획을 짜기 보단 차근차근 만나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노들음악대와 한 학기를 함께 하면서 음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음악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자와 음정이 아귀에 잘 들어맞고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잘 전달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노들음악대는 이런 개념에 다가서는 팀은 아닙니다. 노들음악대는 함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아주 열심히 연습합니다. 저는 여태껏 노들음악대 분들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악에 임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무대와 합주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은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프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음악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배우며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척이나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특정 개인이 해냈다는 것보다 음악이라는 매체 그 자체가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음악을 노들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었네요. 이렇게 매주 서로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한 주 한 주라면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들아 안녕]

##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이동호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온 이동호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일곱 살 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키워주시다가 제가 일곱 살 때 시립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살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삼육재활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5살 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쪽 경기도 광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한사랑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쪽 살았습니다.

그때가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은혜 장애인 요양원입니다. 거기서 22년 동안 쪽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기억하기 싫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했습니

다. 친구의 잘못이 나의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를 알아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분은 동대문 자립센터에서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같이 동료 상담도 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단기체험하고 ILP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살다가 돈을 모아 집을 사서 본격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 꿈은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게 꿈입니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 초심을 잃지 말자



최창문

초심을 잃지 말자

▶ 初心不忘 (초심불망): 처음에 다진 마음(초심)을 잊지 말라는 뜻.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 내가 요즘 하루하루 되새기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처음의 마음가짐과 행동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처음의 마음가짐과 행동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일이 잘될 때는 한없이 기분이 업되고 때로는 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뒤를 돌아보고... 또 다시 초심을 잃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항상 겸손하기로..

"저는 평원재에 있는 000 활동보조인 최창문입니다."

활동보조 일을 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나는 2016년 12월9일 국회의사당 근처 이룸 센터에서

활동보조인교육을 이수했다. 그날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날이기도하다. 국회의사당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일찍 끝났다.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은 받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을 하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하려고 각 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오후부터 하는 활동보조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쉬더라도 아침부터 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센터에 아침부터 할 수 있다고 일자리를 신청했더니... 제일 먼저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000군을 만나 평원재에서 실습 10시간을 받고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서 00군 꽃파(음성꽃동네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초면인 이용자들한테 활동보조인이 바뀐 것에 인사를 하니 어느 이용자가 말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 왔다,

그 말을 모토로 삼고 일을 해야겠다며 다짐하고 금, 토, 일 3일 활동 보조 하는 중에 얼마 지나서 금요일 새벽에 00군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설사를 했으니 오늘 빨리 좀 오세요."

일찍 평원재에 도착하니 누운 상태에서 여러 번 설사를 한 상태... ~ ~ 그 순간 아~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좌절을 잠깐 하는 순간에 "초심을 잃지 마세요."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00군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안고 욕조로 갔다. 씻기고 방에 누이니 조금 있다가 또 설사를 하고. 씻기고 방으로 안고와 누이니 조금 있다가 또 설사를... 또 설사를...

7번 정도 하고 탈진한 00군을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히고 저녁에 데리고 평원재로 오면서 잔잔히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유독 기침도 많이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는 상태라 건강에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 00이지만 활동보조인한테 배려도 많이 하는 00이다.

00한테 처음 활동 보조 하던 날 오후 10시에 끝나는 알람이 울리자. 땀이 많은 내 이마에 땀을 보고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하는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는 이런 감정은 뭘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연한 퇴근시간인데도 00한테 고마움을 느꼈다.

00는 \*\*이라는 예비신부가 있다. 둘이 만나면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고 열악한 상태에서도 행복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내가 배운다.

활동보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정리하고 활동보조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보수를 받는 조건에

활동 보조 일을 하지만 이왕 내가 하는 시간에 이용자와 재미있고 즐겁고 웃으며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이라 생각된다.

첫째 이용자 성격을 살피고 내 몸이 건강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은 물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손을 다치지 않게 주의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보조인으로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나 다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 한 세상 같이 살아가는데 웃고 살자 ~^^

나는 웃는 것과 유머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같이 웃으며 지내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단, 유머도 상대방과 코드가 맞아야 재미있지 그렇지 않으면 썰렁하다)

항상 서두(序頭)에 쓴 "초심을 잃지 마세요." 말을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하루하루 살아가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명희  
노들장애인야학

몇 주기가 되었는지 손으로 꼽아 봐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평원재단에 이종각쌤은 여전히 계실 것만 같고, 코밀을 속속 비비던 호식형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초저녁쯤부터 술이나 진탕 퍼마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나와 당신을 채우고 있던 배경들이 점점 멀어지는 건가 봅니다. 종각과 호식을 우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노들야학의 일상에 매일같이 그를 곱씹지도 그리워하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어느새 삶에서 그들을 비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체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종각쌤의 추모사를 맡았던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 명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이 소개에서 함께 하지만 추모식만큼 떨리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원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장례식에 장애당사자들이, 노들야학의 친구들이 가득 차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노들야학에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개개인별로 후원을 해주셨고, 종로구 이 비싼 땅에 평원재단이라는 건물을 지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관할 소재에 있는 체험홈에 입주를 하려면, 서울시 관할 소재의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해당 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평원재였고, 갑자기 핸드폰을 시설직원에게 빼앗겨, 밖으로부터 차단된 삶에 공포를 느낀 여성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을 기어 나와, 늦은 밤 몸을 기대어 한숨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곳도 평원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댈 곳 없는 중증장애인의 삶 한 편에 따뜻한 집과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던 분이 이종각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고, 야학에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조용히(?) 처리 해주기만을 원하셨던 이종각쌤은, 조금은 특이하고 더 많이 알고 싶었던 노들야학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호식과 종각, 같은 날에 떠난, 노들야학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친구들이 지금 노들야학에 함께 있다면 아주 많이 좋았을 겁니다. 내일이라도 이종각쌤에게 전화가 온다면, 혹은 호식형이 야학 수업에 늦게 와 잔소리를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4월 초마다 당신을 기억하며,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납골당(옹미리)에 있는 호식형을 보러갈 사람들을 확인할 거고, 특장차와 봉고차를 대여해서 열댓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도시락을 먹겠죠. 내년에는 올해처럼 4월 7일이 너무 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따뜻한 그날처럼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상상을 했지만, 올해에는 갑자기 너무 추웠거든요. 내년에도 옹미리에서 돌아와 함께 마로니에 한 곳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당신들을 기억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울 겁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도 울려 퍼질 거구요. 끝나고 야학으로 들어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 하겠지요. 그렇게 4월 7일이 지나고, 하루하루를 살며 또 한 해가 지나갈 겁니다. 지나는 그 시간동안 김호식, 이종각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들야학을 올 때면 지나야 하는 밭아야하는 그 길 하나, 하나를 기억하듯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지만, 그렇게 아쉬움만 가득 찬, 시간들이라 어느 날 사무치게 그리울 때는 마로니에공원 이종각쌤의 나무 앞에 앉아 잠깐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가늠해 보고, 쉬어도 가겠습니다.

## 김호식을 추모하며

###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공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결혼식에 가는 걸 좋아했다.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연인으로, 부부로, 바뀌는 그 신비한 과정이 좋았다. 인연의 연금술이라고 할까. 마치 금이 탄생하듯, 인간들의 관계, 인연이 탄생하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게 좋았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결혼식에는 가지 않고 장례식에만 가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얻는 화려한 순간보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 순간, 한 사람이 쑥 빠져버린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빈자리는 그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 사람'이 여기 있었음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그 빈자리가 진정 인연의 자리라는 생각을 했다. 진정, 사람의 자리는 빈자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또 언제부턴가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잘 가지 않는다. 무덤덤해져서가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좀 버거워서 그렇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 이 친구, 김호식 씨의 영정 앞에 결국 몇 마디 말을 올려놓기 위해 여기 섰다. 내게도 꺼안고 있는 그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그가 홀연히 떠났을 때, 왜 그리 급하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이나 황급히 꾸러진 추모식장에 그의 유품이라며 내놓은 물건들이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타고 신던 휠체어와 신발이 있었고, 벽에는 그가 썼다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몇 권의 책들. 그것을 보는 순간 울컥했다. 나는 벽에 걸린 그의 문장들 대부분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인연이 그 출처였다. 책상에 놓인 대여섯 권의 책은 대부분



철학 수업 교재였고, 그 상당수는 내 책이었다. 책들이 한 권 한 권 늘어서 있는데, 문득 그것이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말 건네기 위해 다가왔던 그의 발자국들...

내가 노들에 처음 온 건 2008년 즈음이었다. 수유너머랑 노들이랑 월례 인문학을 2년 간 진행했다. 그리고 김유미 선생의 노력으로 불수레반 국어수업 시간을 통해 철학 과목이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되었다. 첫 수업, 너무 긴장했다. 그 수업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했던 수업이나 강연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다. 너무 조용했다. 물리학적으로는 진공이 제일 가벼운데, 인문학적으로는 침묵이 제일 무겁다. 니체를 소개하는 첫 시간, 허공에 소리 좀 지르다가, 이제야 고백하는 것이지만, 철학 수업을 포기해야겠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나를 구해준, 커다란 목소리의 주인공이 호식 씨였다. 질식할 것 같던 정적을 찢어준 사람, 그래서 내 숨구멍을 열어준 사람이 호식 씨였다. 그는 온몸을 쥐어짜며 큰 소리를 내주었다. “야, 이거 골 때리네!” 당시 내게는 그것이 복음이었다. 야, 이거 골 때리네. 이상하게 이 소리는 지금도 내 귓속에서 완전하게 재생된다.

문득 학생들의 삶을 모르고는 수업 진행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술 마시며 자기 이야기를 맨 먼저 꺼내준 사람이 호식 씨였다. 어린 시절 형에게 두들겨 맞으며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이야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할머니처럼 구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화 작가에 대한 꿈으로 끝을 맺었다.

수유너머가 깨지고 내가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을 때, 공부에 회의가 들고, 어쩌면 노들야학에 나오는 일도 그만둘지 몰랐을 그때, “딴 건 안 해도 반드시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면 술주정한다”는 소식을, 김유미 선생을 통해서 전해준 것도 호식 씨였다. 또한 내가 중국 작가 루쉰을 철학 수업에서 다루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호응해주고 가장 열심히 들어준 사람도 그였다. 그는 니체를 강의했을 때 니체를 좋아해주었고, 루쉰을 강의했을 때 루쉰을 좋아해주었다. 그는 철학을 강의했을 때 철학을 좋아해주었고, 문학

을 강의했을 때 문학을 좋아해주었다. 그는 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머물고 있던 수유너머R까지 왔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였다. 해방촌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왔고,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이층 계단을 암벽 등반하듯 올라왔다.

생각해보면, 그는 쉼 없이 철학의 자리, 문학의 자리를 향해 다가왔다. 술주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다가왔다. 내가 정신을 엉뚱한 곳에 팔고 있는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그러니까 내게 한없이 다가왔던 그는, 빈자리만을 남긴 채 홀연히 떠나버렸다.

지금 나는 가까스로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보고」라고 하는 한 편의 글과, 그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움켜쥐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움켜질 수 없고, 단지 멍하니 지켜볼 수만 있는, 어떤 날은 한없이 커지고 어떤 날은 잠시 잊기도 하는, 그런 그의 빈자리, 그에 대한 그리움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날은, 내세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 한 번 꺼내볼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가 어디선가 부디 잘 지내길 빈다.



# 저항으로 일구는 땅, 대항로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항로로 정착한 후, 책상에 물건이 하나둘 쌓이는 게 부듯합니다. 글쓰기를 어려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에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곳 '대항로'에 등지를 든 지 벌써 3개월을 꼭 채워 간다. 그동안 집회, 기자회견 혹은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겨우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매일 혹은 식사 때마다 본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우리는 만날 때마다 호들갑스럽게 안부를 나누며 웃음꽃이 활짝 핀다. 그래, 우리는 진작에 함께 살아야 했다. 사건과 상담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며 맺는 관계란 감도부터 다르다. 우리가, 드디어, 대항로에서, 함께 산다.

## 저항의 길, 대항로<sup>1)</sup>

젊음과 예술의 거리인 '대학로'를 우리는 '대항로'라 부르기로 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서막을 연

이곳에서, 장애인인권운동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저항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작명이다. 이름을 붙이고 나니 다가오는 뜻이 새삼 가슴을 달군다. 땀과 눈물이 뒤엉켜있는 곳,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손길이 얼룩진 곳, 여러 커마다 쌓인 역사는 또 끊임없이 제 나이를 먹어가는 곳, 매일 길을 오가며 꾸준히 부린 씨앗의 열매를 끝내는 보고야 마는 곳... 그래, 이곳이 대항로다.

### 1)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서울 한복판에 “420장애인차별철폐의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투쟁의 서막을 알렸던 곳.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양방향으로 처음 생겼던 곳, 대학로 2003년 420투쟁 때 장애인이동권연대 중심으로 모든 진보운동단체들을 조직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을 만들었고 326을 420투쟁 시작일로 정하고 최옥란열사 추모기일로 삼게 되었다. 4월 20일 행진 당시 경찰은 6시 땡하고 일몰이 되면 여과 없이 해산명령

방송을 했고 강제 해산(연행)을 시켰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장장 7시간 동안 밤 9시가 넘어서야 종로 한복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장애인에게 420 투쟁은 척박하고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 2)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권 투쟁

평생을 집구석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왔던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위해 15년이라는 시간동안 견뎌 오고 투쟁했던 정든 공간을 뒤로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며 교육받기 위해 '다시 떠나' 부리 내린 이곳 대항로. 2008년 1월 그해 겨울은 어느 때보다 매서웠지만 천막야학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리고 '야간학교'로 시작했던 노들이 평등의 들판을 일구기 위한 '야학'으로 거듭났던 순간이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바로 이곳 대항로에 노란들판을 일구기 시작했다. '인간 존엄과 평등'의 희망을 일구어 내는 우리의 실천은 해방을 향한 연대의 몸짓이며,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대항로를 우리는 이곳에서 개척해나갈 것이다.

### 3) 탈시설 투쟁

탈시설 투쟁은 인간 존엄에 대한 투쟁이다.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를 증언하는 투쟁이다. 바로 이 곳 이 자리는 존엄의 투쟁 탈시설 투쟁의 역사적 현장이다. 2009년 6월 2일 시설장애인의 역습! 김진수, 김동림, 황정용, 방상연, 하상윤, 주기옥, 김용남, 홍성호 마로니에의 8인이, 시설은 아니다. 좋은 시설은 없다. 우리가 있을 곳은 지역사회,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sup>1)</sup> 이 글에 나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박현 님이,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권 투쟁'은 박경석 님이, '탈시설 투쟁'은 임소연 님이, '이동권 투쟁'은 문애린 님이 작성했다. 4월 2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대항로 파티'에서 글쓴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글들을 차분히 낭독했다.

33일을 바로 여기 대항로에서 노숙하였다. 탈시설을 권리로서 요구하였다. 탈시설장애인 한 명 한 명은 혁명가가 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삶이 탈시설 투쟁의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 마로니에 8인 혁명의 정신을 이어 대항로의 길을 개척하라 대항로! 이곳은 우리 탈시설 투쟁의 현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4) 이동권 투쟁

몇 명의 장애인들과 대학생, 시민들이 함께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와 버스를 점거하고 버스타기를 몸으로 실천했던 이동권 투쟁의 메카 대항로. 수많은 선전전과 기자회견 등 끝도 없이 길에서 삶을 보냈던 기억을 간직한 곳이며,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를 우리는 투쟁으로 만들었다. 다시 한 번 이동권의 투쟁을 시작했던 마음으로 대항로의 시대를 열고 싶다.

#### 앞으로 나아갈 길,

얼마 전 한 장애인이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기계를 또 누군가는 타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여전히 턱 앞에서 우리는 굶주림과 생리욕구를 뒤로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장애인은 배움이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교육에서 배제된다. 마로니에 8인 투쟁 10년째인 해에도, 30,980명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이 물밑듯이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 새삼스럽다. 하지만 ‘대항로’는 누가 터준 길이 아니다. 그동안 번두리에 불과했던 장애인의 현실에 분노하고, 행동으로 저항해온 사람들이 함께 일궈온 길이다. 사회제도의 변화는 대항로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다. 나와 내 옆 사람을 믿고, 불의에 대한 저항을 주저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대항로일 것이다.

## 빛진 마음에 벽돌을 놓습니다

### 대항로 시대를 여는 벽돌 후원인 이야기

#### 박정숙

노들야학 한소리반 재학생이고 노란뜰판 상근 활동가입니다.

오십을 훌쩍 넘어 꼬트머리에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 순간은 지금도 떠올리면 아쉽고 후회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 수 년이 지나도 설핏 마음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30년도 전에 결혼을 하고 어려움이 많아 신혼여행을 미뤘습니다. 30년째 꿈만 꾸고 있던 여행을 제주도로 정하고 목적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안 다녀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선 돈에 이름을 붙여 줬지요. 제주도 여행 기금... 이렇게 하니 모여졌고 적지 않은 돈이 생겼지요. 이제 하나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이미 신혼여행은 아닐 테고 그때의 느낌도 아니겠쇼. 놓쳐버린 것은 이러나저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지가 지나쳤던 순간들이 늘 마음을 헤

집는 밤들이 잠 못 들게 하는 요즘 옛일 교훈삼아 비춰볼 때 놓치면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한 두 번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두 번은 제주도를 생각하고 마음에게 물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불편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인생을 바쳐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싸워준 동지들 때문입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2,30년 전부터 동지들을 알았다면 참 좋았겠구나, 장애인으로 살면서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청년시절을 보낸 것이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투쟁하는 현장영상을 보며, 저분들이 나의 투쟁을 대신해주었구나

#### ★ ‘대항로’에 새롭게 입주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잘 부탁해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단/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 보증금 1억 마련을 위해 ‘벽돌회원’을 상시 모집 중!

1명의 벽돌회원은 30만원~100만원의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벽돌기금은 ‘5년 후 상환받기’와 ‘완전후원’ 둘 중 하나의 방식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완전후원’ 벽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년 후 상환받기’는 기부가 아시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대항로 5층에 있는 누구나에게! 특히 아래에게!)

슴 몽클하고 고맙고 내가 바로 빛 진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있는 자리가 현장에 나갈 수 없기에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긴 시간의 투쟁들이 모여서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진 세상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온몸을 던져 싸우면서도 편히 앉아 일할자리 없이 이리저리 다니다 이제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자리가 대학로에 마련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기에 머릿속 계산기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대학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과거의 암울했던 시절과 투쟁으로 이겨나가는 오늘 그리고 마침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위해 동지들의 목마름을 풀어줄 한 모금 물에 한 방울이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고 주어진 기회를 덤석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 방울이지만 두 방울 세 방울이 모여 한 대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목마르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 확신합니다. 나는 늙어가지만 동지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붙이로 살고 싶습니다. 동지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긴 시간의 투쟁들이 모여서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진 세상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교단일기]

## 6년 만에 다시 시작한 미술수업



정석환

노들 미술반 교사.

어쩌다 보니 전공과는 별 관계없는 미술 교사를 맡고 있다.

원래 2011년부터 12년까지 대략 2년 동안 노들의 미술시간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분위기나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닌지라 오랜만에 방문한 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도 적잖게 달라져있었다. 극장과 맞집으로 백백한 대학로 한 구석의 크지 않은 건물 한 층에 뜬금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힘겹게 살림을 꾸리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결 여유가 생겼달까. 건물 자체는 그때 쓰던 건물 그대로지만, 세 개의 층을 전부 쓰면서 넓어진 공간은 학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친목을 나누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늘어난 공간만큼 이곳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

대에 일종의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인상도 들었다.

6년 전보다 나아진 듯한 살림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6년 전에 수업을 하면서 안면이나 친분이 있던 분들은 졸업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많이 떠나시고 학생들 면면도 처음 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전 수업에서는 주로 손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수업진행에서 보조교사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반면, 이번 학기에는 손의 거동 자체가 불편한 분들은 거의 없어서 아무래도 비교적 적은 도움만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 자신도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과거보다는 약간의 체계나 노하우 같은 것이 생긴 기분도 들었고.

예전의 수업이 주로 무언가 그리거나 만들고 싶은 학



생들의 욕구에 맞춰 그때그때 최소한의 주제만 정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었다면, 이번 학기의 경우 수업이라는 정의에 충실하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으로 수업의 컨셉을 잡았다. 그냥 손이 가는데로 자유롭게 그리고 만들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남들에게 좀 더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익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미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학기 초에 맨 먼저 시작한 것은 물체의 형태와 명암(그림자)을 연필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색깔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먼 물체와 가까운 물체의 거리를 파악하고 원근법에 따라 풍경을 그리는 법 순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중간중간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자유로운 그리거나 영화감상 등의 시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마치 국어나 영어 수업을 하는 듯한 딱딱한 분위기의 수업으로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전의 다른 미술선생님들이 진행하던 방식에 비하면 이런 방식의 수업이 그리 큰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어나 산수, 과학 같은 학교의 필수과목들도 아닌데 첫 시간부터 교사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선 굵는 것부터 하나 하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업방식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다행히도 학기말을 앞둔 지금까지 수업 자체는 학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여준 덕에 큰 불상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주 빠짐없이 출석해서 수업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준 덕에 진행

하는 입장에서도 큰 난관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재미없는 수업에 예의상(?)으로라도 매주 참여해서 열심히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그저 손이 가는데로 연필과 붓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을 의도한 것에 가깝게 그려낼 수 있는 기본적인 감각이 손에 배기 시작한 듯하여 그 점 또한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목적이야 어쨌든, 일종의 특별활동에 불과한 미술수업에서 너무 딱딱하게 판에 박힌 수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 2학기부터는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계획이다.

한 학기동안 지루하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원근이니 비례니 크기니 하는 무수한 단어의 뜻이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미술시간이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나갈 때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자조적이긴 하지만 지난 한 학기에 그 정도의 의미는 부여해보고 싶다. 한 학기동안 참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노들피아드, 과거시험... 폭소수학대회?

### 야학 수학수업 교사들의 이야기

민아영

노들장애인야학 자원교사이면서,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게 저에게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이런 저런 요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예.. 맥주를 많이 좋아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노들야학 전 교실에서 수학 수업이 진행된다.

수학 1반부터 5반으로 나누어진 수학 교과.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수학공부를 하면서 배운다. 곱하기를 잘 하지만, 시간의 크기를 가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천원과 천원이 더해지면 2천원이라는 것을 알지만, 1과 1이 더해지면 2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 7~8년 전, 대대적인 시험을 통해 반을 구분했지만, 여전히 수학교사들은 고민의 연속이다.

검정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수업으로의 기능은 이미 많이 바래진(?) 현 수업 속에서 수학교사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수업이 끝나고 느껴지는 이 자괴감, 반복되는 수학문제풀이 속에서 이게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초라함. 재미! 재미를 찾고 싶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을, 관심 있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수학 수업을 만들고 싶은 수학교사들. 그 고민들을 시래기국밥 집에서 밥을 먹으며 나누어 보았다.

**민구** 오늘 시계 읽는 수업을 했어요. 덧셈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수업 마지막에 ㅇㅇ누나의 질문 '선생님, 3시간이 30분보다 커요?' 아, 이걸 듣고 수업 뭐 했지 하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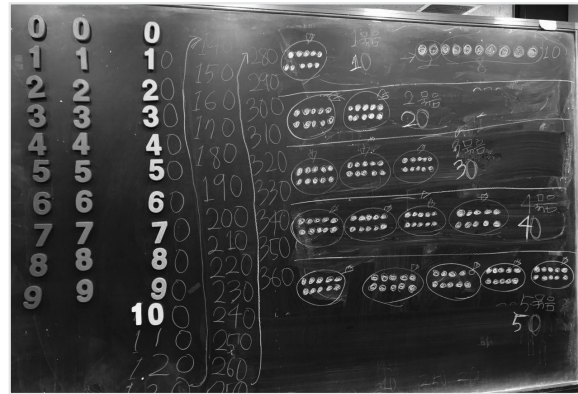
**진수** 실제로 3시간과 30분은 알람을 맞춰보고 경험하게 해보는 건 어때요?

**민구** 매 세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한 달 동안 경험하시도록? 이야, 확실히 아시겠네.

**혜선** 맞아, 이게 단위라는 게 가능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자기가 시간을 보면서 움직인 경험이 없으니까. 또 요즘에는 시계가 숫자로 되어 있잖아. 바늘 시계를 보는 게 어려울뿐더러, 자기가 계획해서 움직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민구** 시간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국밥을 잘 먹었다)



**아영** 1학기 첫 번째 수학교과모임 때, 노들피아드나 과거시험 같은 걸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혜선** 성취감이 생기는 기회는 될 텐데, 각자의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재미로 하거나, 아니면 반 편성할 때,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혹은 구구단은 대부분 아는가 모르는가. 분수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런 내용의 현 야학의 수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아영** 수학에 흥미가 떨어져있는 것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문제도 실생활 수학식으로 내는 거지. 수학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서.

**민구** 그러면 반별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푸는 걸로? 같은 문제를 풀면, 어떤 분들은 아예 못 풀고 반별로 다를 거 아니냐, 흥미라는 게 많이 맞춰야 뿌듯하면서 생기잖아.

**아영** 그렇게 되면 전체 경시대회를 하기엔 어렵겠다.

**민구** 청솔 1반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관건인 거 같아. 골든벨처럼 해볼까. 황당수학 문제를 내놓고, 떨어지면 패자부활전하고.

**아영** 야학교사 줄넘기 넘은 수만큼 들어오고. 나는 사실 그런 방식을 생각했어.

**민구** 아 그래서 과거시험 컨셉이지, 재밌겠다.

**아영**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명제문제로 참과 거짓.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혜선**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우리도 못 맞춰. 우리도 한참 생각하면서 해야 해.

**민구** 우리 수학경시대회 표피를 쓰고 황당 퀴즈를 내자.

**진수** 일 더하기 일은 노동자, 이 더하기 이는 뎃니.

**일동** 아....(탄식)

**아영** 그럼 아예 찍어야하는 문제를 내는 건 어때. 문제는 25개면 충분하겠지?

**민구** 내 키는? 내 나이는? 뭐 이런 걸해서 그 자리에서 인치 까서 확인해 보고 하는 건 어때? 예를 들면, 진수와 민구가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진짜 팔씨름해서 알려주고. 나

는 진수 선생님한테 걸 거야. 뭐 이렇게. 엮으면 되잖아. 그럴 때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확률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뺄셈 문제이니까 김유미 선생님과 민아영 선생님 중에 누가 클까요? 찍을 수 있는 문제면, 청솔 1반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예상할 수 있는 문제, 3시간에 대한 기준, 1미터가 감인 거잖아요. 감에 대한 문제인 거지.

**혜선** 한소리반은 뒤에서 팔짱끼고 있는 거 아니야?

**유미** 아니면 팀을 짤까? 협력의 경시대회를 하는 거지. 문제를 보물찾기처럼, 훔쳐어 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해놓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찾고. 자기 팀으로 가지고 가서 푸는 거야.

**혜선** 서로가 있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 경남이가 있으면 거기에 동림이형, 영애언니가 있으면 장기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민구** 걱정이 되는 게 누군가는 머리,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서 분업화가 되니까.

**유미** 전체가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하면 한소리반 학생들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민구**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누군가는 기능적인, 누군가는 지시적인 분업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반별로 하면, 문제를 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진수** 다 모르고, 답을 말하면서 해석 해주는 거지.

수학의 역사나 옛날 어디서 시작했다.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민구** 그림에도 청솔 1반이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같은 문제를 낼 거면, 청솔 1반에게 맞춰야 할 텐데. 설명해준다는 거잖아. 설명에 대한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지.

**혜선** 아영이가 롯데슈퍼 999에서 노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층부터 6층까지 계단 수는?

**유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초 만에 마실 수 있을까.

**혜선** 우리 이거 하다가 사고 날 거 같아. 폭소퀴즈 대회?

**민구** 그런 컨셉으로 다섯 개씩 문제를 뽑아 와서 할까요?

**유미** 경남이 언니가 집에 갈 때 버스 번호는?

**혜선** 경남이가 몰라. 번호를 모르고 늘 타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민구** 경남언니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5개 뽑아 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민구** 나도 그런 거 낼 거야. 배팅하는 거. 문제를 내는 사람이 경남누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남언니가 무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유미** 경남언니 가방 속에 이면지가 몇 장?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수학 대회를 고민하는 교과모임.  
계산은 계산기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수학적 '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만들어보기로 한다. 청솔 1반부터 한소리 반이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보자는 포부를 밝혔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지!  
<노들바람>을 계속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

# 노들야학 발달장애인 낮활동 “우워 ~ 우워 ~” 에 갈 거야 ~~~~”

## 윤제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장. 25년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했지만 거주시설 경험 2년 7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설 초년 사회복지사

인강원 거주인 63명 중 노들야학 낮 활동에 10명 (20%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금 이른 점심식사를 하고 노들야학 선생님의 운전지원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기 전 귀원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주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원이 늘어나면서부터 인강원의 지원교사가 동행해서 돌발 상황 및 특이사항에 대처하고 있다. 초반에는 인강원 지원교사의 과도한 책임감, 생활관에서의 지원태도의 연장 등으로 상호간 불편함이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강원 거주인들은 노들야학 낮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도 나름대로는 개별활동 계획에 의한 원내치료, 개별 여가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개별 이동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원 밖 외부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이 무료하기도 했을 것이다. 짧게라도 외부활동이나 나들이를 하려면 지원교사들의 근무조정과 행정인력의 지원 등 조정하고 확인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부활동이 그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인 반면 인강원 거주인들은 원 밖 외부활동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들야학 낮활동에 참여할 거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습 능력, 언어표현능력, 일상생활수행기능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 밖 경험이 필요한 분들에게 참여를 권유했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다는 거주인은 가능한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그간 원에서 나름대로는 무료한 일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지만 시설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거주인들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일 노들야학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언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낮시간 좁은 방안에서 부대끼는 시간을 줄이고, 365일 같이 생활하는 동료거주인, 지원자만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일과 중 잠깐이라도 시설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의의를 두고 시작한 것에 비해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활발해짐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의사표현이 더 강해지고 적극성이 늘어나 노들에 참여하지 않는 요일이나 다른 활동에서도 활기가 넘쳐난다.

매일 다른 일정에 정기적으로 가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됨이 분명한 것 같다.

언제나 본인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소리를 질러 본인의 감정(화)을 풀었던 고\*\*씨는 이제 조금씩 자신의 고통소리에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것을 알아가고 화가 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가서 감정(화)을 푸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작은 체구와 느린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분 타인에게 의존하던 김\*\*씨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이며, 매사에 적극성을 가지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진작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시간 내 뒤에서 서성이기만 한다는 최\*\*씨도 다른 일정으로 노들 결석을 설명하면 조용히 수용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성 상동행동을 하거나 매우 답답해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들에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매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노들 교사에 대한 느닷없는 가해 행동으로 당분간 이용을 중단한 장난기 많은 김\*\*씨의 속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특유의 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하나 더! 세상 밖이 너무 두려운 황\*\*씨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노들 낮 활동에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

거주시설 경험 2년 7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설 초년 사회복지사 원장은 지원교사들에게 늘 말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노들야학 낮활동 참여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등을 정리하고 서로가 익숙해지고 나니 결코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우리의 속도가 아닌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인들의 속도에 맞춰 작은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1) 언어표현이 부정확한 이\*\*씨가 노들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댄스 동작으로 노들 낮활동을 칭하는 표현

# 백야 속의 한줄기 어둠 CDC디자인학교!



## ≡ 박시백

글 첫 줄에 나오듯이 12년차 노란들판 디자이너. 노란들판에서 맥주맛을 아는 유일한 존재. 시크한 따스함을 추구함.

나는 노란들판에서 고박 12년을 일하고 있는 장기생존자이다. 노란들판이라는 자동차에 탑승한 다섯 번째 멤버였을 때만 해도 어디로든지 멀리 벗어나고 싶은 도망자의 심정이었고 적당한 때 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적당한 때... 이곳에 속해온 세월과 함께 셋노랑게 물들어버린 탓인지 그 적당한 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불청객이 언제든 차문을 열고 내리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을 버리고 운전대를 잡아야 할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질게 물들기 전이던 그 시점이 가장 적당한 때였다.

매해 많은 사건, 사고와 사람이 들고 났다. 일 년. 또 다른 일 년. 기본 순간과 힘든 순간을 함께 겪으면서 그렇게 십 년 넘게 달려왔다. 일도 사람도 풍성해졌고 그에 따라 노란들판은 나날이 성장했다. 순이익은 낮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고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달이 났

다.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일에 지쳤고 여전히라고 하기엔 열정과 에너지가 바닥남을 느꼈다. 무엇보다 바닥을 드러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지금이 내릴 때이다.'

결과적으로, 나를 계기로 장기근속자 휴직제도가 생겼고 내가 첫 타자가 되었다. 여차피 무급휴직제였고 내 입장에서는 안 돌아와도 고만이었지만 노란들판에 대한 애착은 쉽게 탈색하기 힘든 성질의 것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노란들판의 신의한 수였던 것이다.

다시 결과적으로, 작년에 사용한 5개월간의 휴직 기간 동안 가장 좋아하던 유럽의 한 도시에서 20일 넘게 원 없이 지내다 오는 등 잘 쉬고 돌아와서 잘 일하고 있다. 내게 놓여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으로써 나를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한 충전의 시간이었다.

그런 힘을 받아 올해 3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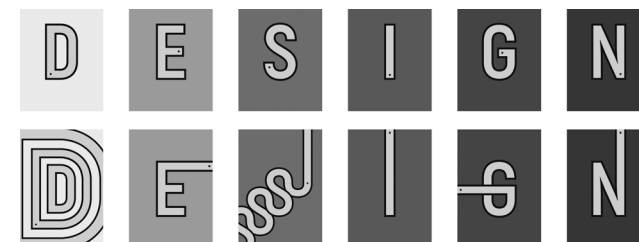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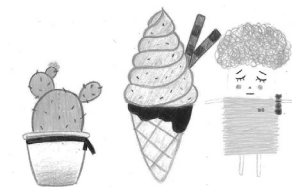
들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CDC디자인학교'를 열었다.(CDC: C100 DESIGN CENTER) '디자인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지는 인생의 디자이너 되기'라는 수업목표로 2주마다 업무시간 이후 2시간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은 총 6명이다.

노란들판에 출근한 첫 날부터 몇 년간, 나는 디자인을 가르쳐야 했는데 내가 가르친 건 디자인이 아니었고 '툴'이었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라는 생각이 들 거를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다. 노란들판은 학교가 아니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었으나 디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언젠가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디자인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올해는 기초디자인 '점을 찍다' 과정으로 말 그대로 기본기를 다지는데 주안점을 둔다. 나름 대학교 수업처럼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진의 이해, 타이포그래피 기초 등의 과목을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 수업 때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자고 얘기했다. 매번 주어지는 과제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나 또한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

얼마 전, 내 생일 때 학생들이 티셔츠를 선물로 줬다. CDC 로고를 넣어서 단체로 티셔츠를 맞춘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이었다. 모두들 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기까지 했다.(개인적으로 노란들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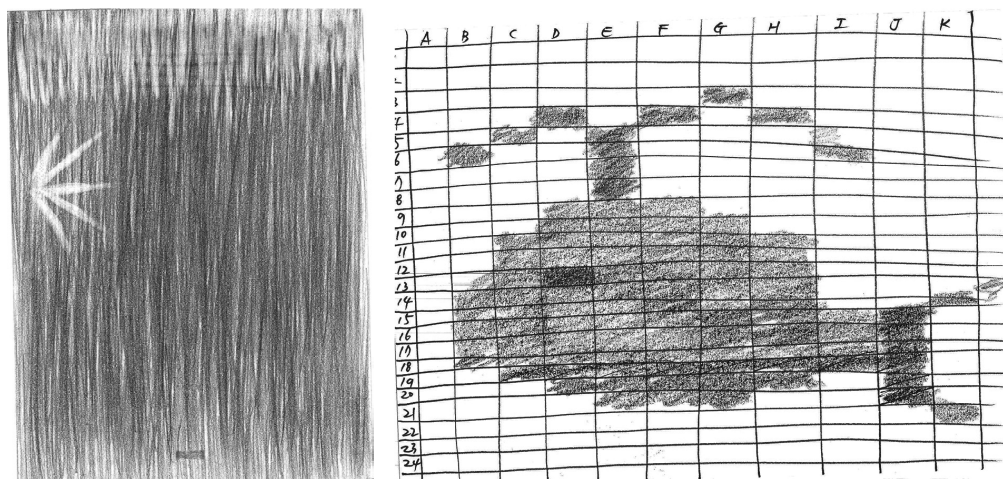
람들 생일 때마다 단체톡방에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줬었다) 내년에도 CDC수업을 한다면 모집광고에 활용할 만한 아래와 같은 훌륭한 삼행시도 있었는데 개중에 F 학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삼행시도 있었다.(박카스! 시금치? 백구...)

**박 : 박팀장님의**  
**시 : 시디씨를 만난 건**  
**백 : 백야 속의 한줄기 어둠**

내일도 수업이 있다. 이번 과제는 '발상과 표현' 과목 마지막 과제인 '길'이다. 길을 자유롭게 표현해오는 것이다. 누구는 글자로 길 모양을 만들어 올 것 같고... 누구는 미로를... 누구는 갈래길을... 가수 길을 그려올까 봐 걱정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길에는 시작이 있다. 막다른 길이 나와도 다시 돌아서는 순간 시작이다. 없던 길을 만드는 시작도 있다. 계속 가도 좋고 가다 멈춰 서서 머무르는 것도 좋다. 멈췄다 다시 가는 것도 시작이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 시작했다. 너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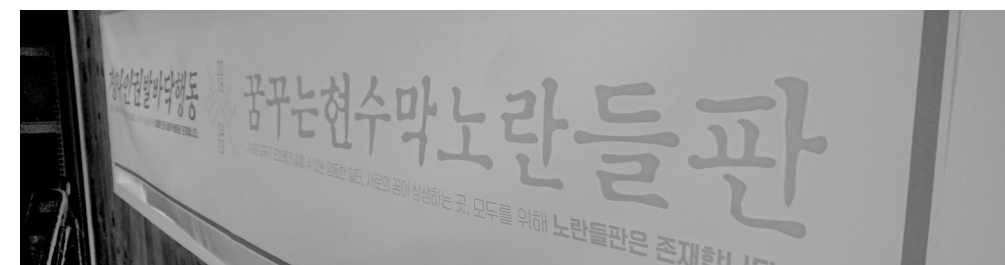
"CDC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만난 여러분은 완벽한 디자이너는 아닐지 몰라도 이미 인생의 굿디자이너입니다." (졸업식 때 할 말을 해버렸다)



##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X 노란들판

진영인

노란들판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진지한 글쓰기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만남

일시 :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노란들판 회의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을 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현수막 공장 노란들판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바쁜 활동 중에도, 공장 상황을 배려하여 발바닥행동 활동가분들께서 멀리서 기꺼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노란들판에서는 지난 해 장애인 노동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마중물'이라는 작은 소모임이 만들어졌는데요, (※혹 마중물의 이름 유래가 궁금하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노란들판으로 전화주세요. 02-469-

9101) 모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연대단체들과의 만남, 그 중에서도 노란들판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발바닥행동과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행동에서는 김정하, 조아라 님, 노들법인의 아영 님, 노란들판에서는 박시백, 신봉준, 안연주, 조상필, 조수안, 조아라, 정상욱, 진실로 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평소 궁금하였던 발바닥행동의 주요 활동과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안, 탈시설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의 삶에 대해 듣게 되었고, 발바닥행동과 노란들판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각 투쟁과 일터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른 듯 닮은 두 단위의 만남이었습니다.

## 동림과 성호의 좌충우돌 인권 교육

### ≡ 김동림

노들야학의 학생이며  
여러분과 함께 할 김동림입니다.

### ≡ 천성호

노들야학을 통해 노란들판을  
만들어가는 천성호입니다.

지난 4월부터 동림과 성호가 짝궁이 되어 인권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림형이 인권교육에 있어 노련한 전문가라면 성호는 초보라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한 짝궁끼리의 궁합도 잘 맞아야 합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호** 달팽이(동림) 선생님은 언제부터 인권교육을 시작했나요?

로 올라와서 그런지 물어보는 것이 적고, 고등학교 1,2학년은 많이 물어 봐요. 인권을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고딩”이라면 듣기 좋나? 왜 싫어요.” 하면 그냥 고등학교라면 되는데 “초등, 중등, 고등”이라면 기분이 나빠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할매, 할배” 하면 좋으냐고 해요.

**달팽이** 한 7~8년 정도 되었어요.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성호** 우리가 인권교육을 나가는데 초, 중, 고 학교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호** 그동안 다녔던 교육 중에서 인상 깊었던 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달팽이**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적은 초등학교는 대부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에 우선 그냥 장애인을 무척 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알아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바

**달팽이** 창문여고예요. 창문여고 처음에 교육을 나갈 때, 학생들이 쪽지예다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 했어요. 학생들이 우리 보고 힘내라고 편지를 쓰고 했어요. 그때 기억이 남아요..



**성호** 학생들이 우리가 오면, 다른 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가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하지 않아요?

마다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근데 다음 받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명도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숙제처럼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받은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좀 의아 했어요. 인권교육이 무슨 공부처럼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일기를 쓰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인권 침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를 해도 해당학교의 자율성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의 문제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달팽이** 초, 중학교는 처음에는 불편해 해요. 초등학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은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지, 시혜와 동정으로 보는 것이 많아요. 고등학생은 자기가 결정할 기회들이 많아서인지 ‘자기결정권’을 말해도 알아들어요. 안 좋았던 일은 예전에 남녀 공학인 고등학교 갔어요. 거기는 남녀 공학인데 그 때 준호쌤이 같이 갔는데.. 학생들이 장난만 치고, 수업을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한두 명 정도만 듣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은 안 들었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한 가지는 초등학교 경우는 반에 선생님이 계시면 경직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못해요. 선생님이 나가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요.

**달팽이** ○○초등학교는 숙제하는 것으로 되는 곳이 가끔 있어요. 인권교육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처럼 경직된 교육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인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다 끝나고 소감 쓸 때 쓰면 되는데.. 숙제가 되니까 재미도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성호** 저는 ○○초등학교 갔을 때, 처음 선생님이 없는 반에 갔을 때 학대 받는 애들이 있니? 하고 물으니 “엄마, 아با에게 맞았다. 회초리로 맞았다.” 등등 심지어 “동생에게 맞았다.”라고 저

**성호** 달팽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장애인인권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요?

**달팽이**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인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장애인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접해본 학생들의 경우는 장애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이것이 밥이다. 인권은 밥이다.” 하면 잘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린이 인권 현장을 설명할 때는 그래도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듣거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접하는 것이니 신기하게 바라봐요. 요즘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보거나 컴퓨터로 보는 것이 전부인데, 어린이 인권이라 하고 그 교육을 잘 진행하면 잘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호** 달팽이 형이 생각하는 인권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달팽이** 처음부터 그랬지만, 두 시간 동안 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도 혼자 나가면 두 시간을 할 분량을 못 채우고 한 시간 만에 끝내는 적도 있어요.

**성호** 저와 새 짝지가 되어 만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서로 호흡이 잘 맞나요?

**달팽이** 교육을 진행 하다가 어느 분량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면 서로가 받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들야학에 대해 모꼬지를 설명하면서 성호쌤이랑 둘이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인권교육을 나갈 때 어디서 어떻게 할까를 정해서 가는데,

생각하고 집에서 준비하다가 마이크를 잡으면 머리가 하얗게 돼요. 지금은 사실 조금 그래요.

**성호** 달팽이 선생님, 나중의 꿈은 무엇인가요?

**달팽이** 꿈이 인권강사를 하면서 시설 장애인들을 나오도록 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예전엔 몰랐지, 시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장애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때는 뉴스를 보곤 했는데도 장애인에 관해서는 안 나왔는데.. 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좀 알고 나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나와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살 사람은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한 가지는 부모들이 싫어하고 장애인들이 앉아서 먹고 싸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더 말하면 시설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시설에는 자기 결정권도 없고, 뭐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사람들이 오면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성호** 동림형 할 일 많습니다. 탈시설도 운동도 해야 하고.

**달팽이** 내가 10년만 젊어도 아무 시설에나 가서 탈시설 운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가 있어 어디 한번 나갔다 오면 힘들어요. 탈시설 운동을 예전에 박시게 했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이라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끝>

## 여기모여 - 우리들의 미투

최은화

노란틀판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멍하니 있는 것, 오랜 시간 걷는 것, 오랜 시간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유력 정치인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역시 피해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발에 의해 밝혀진 사건)과 함께 검찰, 정치계, 연예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많은 가해자들이 폭로되었고,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위드유(With You, 당신과 함께) 운동으로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여성들의 연대의 물결 또한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어떤 구조'에서 '약자'인 '여성'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함 앞에서 순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으로 나를 지키고, 용기있게 저항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란들판 '여기모여(노란들판 내 직원들의 모임)'  
상반기 모임에서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최  
근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우리들 각  
자의 미투(Me Too)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들이 겪었던 사소하지만 전혀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보며 우리부터 어떻  
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까운 곳부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요일 밤, 업무시간이 끝난 후 노란들판 직원들은  
회의실에 빙 둘러 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한창 올라오  
고 있는 미투 관련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주  
변에서 느꼈던 (혹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기 시  
작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았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되었  
고, 또 자연스럽게 내가 겪었던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되  
었습니다. 막상 어떤 이야기를 꺼내 놓아야 할지 머뭇  
거렸던 순간도 잠시 서로에게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  
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른 지도 모른 채 두 시간이 훌쩍 흘

렀고,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  
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지만, 여  
전히 많은 문제들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은 끝나지 않은  
질문들과 답을 내리지 못한 해결책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별로 나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  
데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웠다는 사람  
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위안을 받아서 좋았지만 한  
편으로 겪지 않으면 좋았을 일들을 조금씩 경험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는 사람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었다는 사람도, 노란들  
판 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저마다 더 나누  
지 못한 이야기에 아쉬움과 긴 여운을 남긴 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우리들의 미투가 누군가에게겐 지극히 별 것 아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들릴지  
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어떤 구조'에서 '약자'  
인 '여성'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함 앞에서 순응하고 무  
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으로 나를 지키고, 용기있게

저항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  
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남성  
이지만 남성이 아닌 사람, 여성이지만 여성이 아닌 사  
람,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 아이, 권력 아래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음을 알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  
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임을. 이것은  
결코 별 것 아닌 문제가 아닌 것임을.

프로듀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밝힌 미국  
의 가수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노래 Til It  
Happens To You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 레이디 가가 - Til It Happens To You

You tell me "it gets better, it gets better,  
in time."

당신은 저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라  
고 말하죠.

You say "I'll pull myself together, pull it  
together, You'll be fine."

당신은 "넌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며 고통에  
서 멀어지라고 말하죠.

Tell me what the hell do you know,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이 뭘 아나요?

How could you know.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구요.

Till it happens to you, you won't know.  
당신이 겪기 전까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how it feels  
그 고통이 어떤지

how it feels  
그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Cause until you walk where I walk,  
제가 걸은 곳을 당신이 걷기 전까지

It's just no joke.  
그 고통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Till it happens to you, you won't know  
how I feel.  
당신이 겪기 전까지, 당신은 제가 느끼는 고통  
을 모를 거예요.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더 이상 가해지지 않기를, 지금의 이 물결이 그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  
기를, 가해자가 가해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  
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끝나지 않은 2009년!

### 탁영희

처음 노들바람에 글을 쓰게 되어 어색해요. 저는 올해 20살이 되었어요. 요즘 오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집 살림하는 중입니다. 두 집 살림 힘드네요.



쌍용 자동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광화문 농성을 하던 시기였다. 그날의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추석이다. 광화문 지하에서 차를 끌고 대한문

앞에 있는 쌍차 농성장에 처음 방문했다. 사실 가기 전까지 무슨 내용의 농성을 하는지 몰랐다. 단지 나는 그냥 따라갔다. 그날이 내가 처음 쌍차를 알게 된 날이다.



쌍차는 나에게  
학령기 교과서 같은  
존재였으며  
'연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쌍용 자동차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이었는데 나는 그때 '쌍차'가 떠올랐고 그 내용을 주제로 탐구하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쌍차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뤘구나'를 생각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전원복직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에게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은 학령기의 한 페이지이며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곳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정리해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김득중 아저씨가 단식 농성 중이던 시기에 연대 문화제를 하러 갔다. 강정 마을에서 본 그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동료가 단식해서인지 아니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또한, 학교

에서 '쌍차'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싸운 훌륭한 투쟁'으로 소개된다. 그들의 투쟁은 누구나 본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올해 처음으로 쌍차에서 하는 '같이 살래요'를 했다. 의미가 너무 좋았다. '쌍용에서 만든 차에 쌍차 동지들을 태워 연대자들이 차를 끌어 청와대까지 간다.'라는 내용이다. 120명의 복직과 그들이 10년 동안 한 연대와 그들의 투쟁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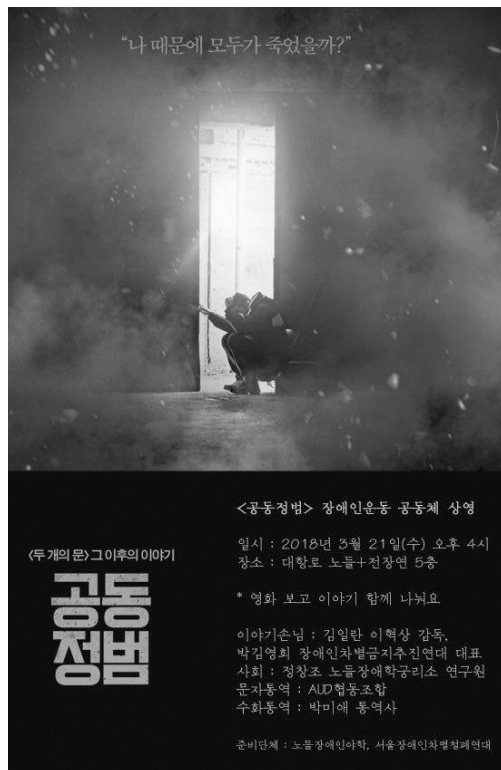
나는 10대에 쌍차를 알게 되었다. 지금 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고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었다. 쌍차는 나에게 학령기 교과서 같은 존재였으며 '연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전원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커져서 전원복직이 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예전에는 청소년이라서 제약도 많았고 핑계가 있었지만 그때 하지 못한 연대들을 올해부터 할 계획이다.

# ‘때맞지 않음’의 ‘때맞음’

영화 <공동정범> 공동상영회 후기

## 정창조

집보다 노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길게 잠을 자고 싶어 한다.



사건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대체로 금방 희미해진다. 그리고 희미해진 자욱 곁으로는 이내 망각이 스며든다. 망각이 스며드는 속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이다. 어떤 흔적은 시대를 잘 만나 질은 흥터로 남아 지속되는 반면, 어떤 흔적은 살짝 굽힌 상처마냥 금세 떨어져 버리는 탓이다.

망각의 침입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다. 어떤 흔적을 오늘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개 이 시대를 조용히/때로는 시끄럽게 작동시키는 권력 내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력(내지 이데올로기) 탓에 가벼이 난 상처로 여겨졌던 상처들이 피부 속에서 끓아 터져 온갖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꽤 흘러 그러한 상처를 다시 꺼내 진단해 본다는 건 그 자체로 참 두려운 일이다. "사실 당신은 과거의 그 상처 덕에 불치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마주하기 위해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현재의 일상은 상처의 흔적을 마주하기 위해 잠시라도 멈출 시간을 용납치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의 투쟁에,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며 과거를 제쳐두게 되는 것도 어찌면 그 모습 중 하나일 테다.

망각은 우리를 치유의 환상으로 인도하곤 하는데, 다행히도 그 환상은 상처받은 자가 일상을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은폐된 상처는 은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참 잘도 갉아먹는다. 심지어 어쩔 때는 맥락 없이 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영혼을 한없이 잠식해 가기도 한다. '때맞지 않음' 과거의 출현이 두려운 것은 어쩌면 바로 이 탓일 테다. 그렇게 흔적은 희미해질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다시 현재(와 미래)를 질게 과거로 물들일 수 있다.

## 공동정범 -

나는 이 영화가 두려웠다. 영화를 먼저 본 이들은 영화에 대해 물으면 하나 같이 한숨부터 푹 내뿜었다. 나 역시 그 한숨을 내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2009년 1월 20일로, 기껏해야 용산참사 관련 논의들이 비교적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 있던 그 애매한 날짜까지로 용산을 묻어두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건은 나에게 '과거'의 분노였고, '과거'의 뜨거움이었으며, 기껏해야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의 소재였다. '지금' 그 사건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사적인 얼굴들을 마주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나는 종종 투쟁공간에서 지나치듯 마주하는 생존자들의 의연한 모습만을 간직하고 싶었다. 그것이 희미해져 가는 용산의 흔적을 내가 애도하는 방식(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작게나마 연대하는 방식이었다.

대항로(노들, 서울장차연)는 그러한 나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동상영회를 열어버렸다! 심지어 내게

공동상영회 GV 사회를 맡겨버렸다! 이렇게 나는 그 영화를 만날 준비도, 자격도 없이 그 영화를 만났고, 공개적으로 그 영화에 대한 나의 말들을, 심지어 타자의 말들을 이끌어 내기까지 해야만 했다. 상영회가 열린 3월 21일, 하필 그날은 '때맞지 않음'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그 날씨조차도 내게는 참 두렵게 여겨졌다. 이미 희미해진 9년 전 겨울 그 날의 흔적을 하필이면 이 봄날 같이 않은 봄날에 마주해야만 하다니. 젠장. 왜 날씨까지 이 날이 때맞지 않은 날임을 부각시켜 주는 것일까.

그리고 역시나 스크린은 때맞지 않은 장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생존자들의 얼굴들이, 이 사회가 이미 망각(했다고 착각하는)한 어떤 흔적들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스크린에 새겨졌다. 내뱉고 싶지 않았던 종류의 한숨이 마구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내 나의 걱정은 더 커졌다. 아니 대체 이런 영화 GV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이 영화에 대해서는 과연 말이 필요하긴 한 것일까? 나의, 내 곁의 타자들의 말이 발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저 강렬한 흔적들은 곧바로 퇴색되어 버리진 않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사회자의 자격을 잃은 채로 GV가 시작되었으나, 다행히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용산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재현되어 왔는지, 왜 용산 생존자들은 좀처럼 대중들에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이 적나라한 영화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얼굴은 어떠한지. 그리고 참사 생존자들 및 투쟁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수성의 요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장판에서 우리는 과연 잘 싸우고 있는 건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사이에서조차 배제된 동지들은 없는지 등등. 이야기 손님들의 탁월한 역량이 사회자의 부족함을 참 잘도 메꿔주고 있었다.

내가 놀랐던 것은 김일란, 이혁상 감독님은 물론이고, (사실 영화를 보기 전, 나와 함께 이 GV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 토로하기도 했던) 박김영희 대표님도 '때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참 잘도 꺼내 드신다는 점이었다. 그 와중에도 9년간 감춰져 있다 이제 막 드러난 흔적들은 돌연 칼날이 되어 옛 상처를 마냥 후벼 파지도 않았고, 우울함 내지 절망의 나락으로 관객들을 인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공간은 때맞지 않을 것만 같던 이야기를 우리들의 지금 이 시공간에 참 '잘 맞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아니 어쩌면 때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때맞는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그것을 때맞지 않는 이야기라 여긴 것 자체가 혹시 우리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설령 그것이 때맞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 세계에 드러낼 의무가 있진 않았을까?

때맞지 않은 장면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곳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재생산 해내는 모습은 사뭇 괴이했다. 그러나 나는 그 괴이함이 싫지 않았다. 하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때 맞지 않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도리어 '현실'이 무엇인지가 더 강렬히 부각되지 않던가. 그리고 그 현실

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만이 비로소 모순들이, 그 모순들에 대한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이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서로 반목하던 용산 생존자들이 영화 말미에 와서야 함께 둘러 앉아, 이미 때맞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그 날의 흔적을 하나하나 그려보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때맞지 않는 노력이 과거의 흔적과 잘 사귀어가며, 새로운 저항의 불씨를 잉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21세기 판 난쏘공'(난쏘공의 배경은 1970년대이다)이라 호명할 정도로 때맞지 않던 그 날. 문명의 상징들로 화려하게 포장된 도시 한복판에 '때맞지 않게(그러나 실은 흔하게)' 출현한 철거민들과, 멀끔한 대로에 던져진 때맞지 않는 존재, 즉 화염병이 낸 시대의 균열. 산화한 불꽃들과 그것들이 남긴 다섯 개의 서로 닮았지만, 서로 다른 흔적들. 대학로를 때맞지 않게 '대항로'라 호명하는 유리빌딩 동지들, 그리고 존재 자체가, 투쟁하는 방식 자체가 이 시대와 때맞지 않는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이 '때맞지 않은 장면'들을 다시 곱씹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 때맞지 않는 상영회는 그야말로 때맞는 상영회였던 게다.



## 미셸 푸코와 함께 장애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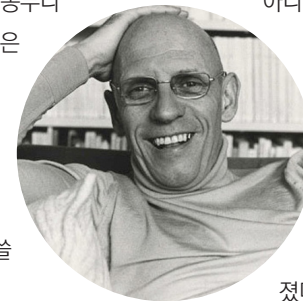
### '장판에서 푸코 읽기' 강좌 후기

하금철

두 발은 분주하고 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저 유리빌딩 기생충.

#### 미셸 푸코의 첫인상

장애인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한지 이제 8년차.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건들을 마주했고, 운동이 사회를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 이론이 아닌 현장의 생생함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현실의 장애인운동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데, 그 뒤공무니를 쫓을 뿐인 사회과학, 인문학 이론은 대체 무슨 소용일까? 이론이 현실 운동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미 벌어진 운동의 결과만을 고상한 말들로 설명하는데 그친다면 이론의 쓸모는 대체 무엇일까?



떠드는 이상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세 번 정도 혼자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 같지도 않았다. 이론에 앞서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 이것이 장애인운동을 추동해 온 사실상의 유일한 '엔진'이 아니었던가? 그 '찬란한' 투쟁의 성과에 비하면 "푸코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지식인 투의 말은 별 영양가도 없이 초라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2015년경부터 한국의 수용소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의 장애인운동이 대결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형제복지원과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 쓰기의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그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푸코의 이론이 이 작업에 어떤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나에게서는 유럽의 형벌제도, 감옥 이야기를 혼자 신나서 그보다는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에 기대지 않고 내 눈

으로 확인한 자료로 말하고 싶었다.

나는 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수용시설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의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50~60년대 초의 부랑아, 불량소년 문제를 다룬 자료를 뒤적였다. 그러던 중 권순영이라는 소년재판 전담 판사의 부랑아 범죄 사건 분석 글을 여러 편 접하게 됐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부랑아 범죄 원인이라는 것이 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그는 부랑아들의 생애사를 조사하고, 간단한 심리학적 조사도 병행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부랑아 범죄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 ① 사회성이 낮고 친구가 적다.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많다.
- ② 부모가 없거나 편모, 편부, 계모, 계부 밑에서 자랐다. 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교육에 무관심하거나 교육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③ 정서불안, 신경질적 성격 등을 보이고, 자기 통제가 안 된다.
- ④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대해 적개심이 있다.
- ⑤ 욕구불만과 열등감을 해소하려 한다.
- ⑥ 정신분열 성향을 보이며, 집중력이 약하다.
- ⑦ 학교 성적이 낮다.

권순영이 제시하는 사례는 대부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학업을 중단해 갑자기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는 식의 생애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삶의 변화는 조금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오직 저들의 ‘정신 이상’만을 드러내기에 바빴다. 이런 묘사 속에서 저들은 전쟁·이산과 같은 엄청난 삶의 변화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범죄자가 될 품성을 지닌 이들로 다뤄졌다. 게다가 이런 시선은 권순영 만의 것이 아니었고, 부랑아 문제를 다루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가진 것이기도 했다.

가난한 이들의 생애사를 이미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한 ‘정신이상’으로만 그려내는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한참 고민하다가, 어디선가 푸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언급이 생각났다. 아마 그때부터 푸코를, 정말 허겁지겁 읽기 시작했던 것 같다. 무작정 비슷해 보이는 키워드로 선택한 책이 『비정상인들』이었다. 그 전보다는 선명한 문제의식이 있으니 생각보다 빠르게 읽혔다. 그리고 푸코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나고 비로소 무릎을 딱 쳤다. 푸코는 이처럼 정신이상의 징후들로 부각되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 미숙성, 구조화되지 않은 인격, 깊은 불균형 등의 발달 단계”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윤리의 위반’의 표지일 뿐인데도 정신의학의 담론 속에서는 범죄의 위반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대칭의 구성은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얼마나 자신의 범죄와 닮아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즉, 그들의 ‘범죄 가능성’은 무슨 대단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담론의 구성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푸코의 논의 속에서 ‘소수자의 범죄화’라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비마이너』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장 제대로 집중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다. 이 계기를 통해 뒤늦게 ‘이론’의 쓸모를 느꼈고, 박정수 선생님의 ‘장판에서 푸코 읽기’ 강좌도 주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푸코라는 꽤 쓸만한 연장

솔직히 강좌를 듣기에 앞서 살짝 걱정도 있었다. 사실 철학자 한 명을 주제로 놓고 진행되는 강좌가 텍스트에 대한 해설과 각주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강좌라면 정말 질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마이너』 객원기자,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의 직함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박정수 선생님의 강좌는 지금/여기의 현상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특히나 ‘소수자의 범죄화’라는 나의 관심사와 관련해서도, 단지 “푸코에 따르면...”이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고, ‘푸코와 함께’ 현실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정신장애인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판결하는 치료감호명령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 주셨던 부분이 특히 그랬다. 보통 치료감호명령에 대해 사람들은 무죄 선고를 한 것 아니냐며 흥분하며 비판하는데, 사실 치료감호소는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이다. 치료감호소의 감호기간은 ‘치료가 될 때까지’로 정해지지만, 실상 죄질과 형벌논리(즉, 재범가능성이 없을 때까지)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금치산자 선고’(현재의 성년후견인 지정)의 논리와 같다. 정신장애인과 같은 ‘심신상실자’의 범법행위(살인)를 무죄 판결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하는 것은, 금치산자의 범법행위를 무효화하고 이를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을 인간 이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특수학교’라는 격리된 교육시설에 몰아넣는 것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과정을 ‘시민권 박탈’이 아니라 ‘약자의 보호’ 또는 ‘복지’로 둔



갑시킨다. 시설수용과 복지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복지’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위법 행위 없이도 처벌하고 가두는 게 정당화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일까? 푸코의 논의가 이론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푸코는 단순히 실체화된 권력의 형상을 등장시켜, 그것이 지금과 같은 장애차별적 사회 시스템을 등장시켰다는 설명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고전주의 시대로, 고전주의 시대에서 다시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 체계 등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마침내 근대에 들어 생명·노동·언어에 대한 독립적 사유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사유의 끝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긍정적 설명방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설명방식에 의해 도출되었다. 지금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이 나열하고 있는 15종의 장애유형(박정수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서 이 유형 분류가 기존의 불일치와 범주 혼란을 내포하고 있음을 족집게처럼 집어내셨다)이 바로 그 대답의 하나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 미달한 저 ‘15개 종족’들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 과학의

이름을 내세운 온갖 테크닉들이 이들을 '재활치료'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저 치료의 공정에 들어서지 않는 장애인은 '정상인 인류'에게 부담을 주는 폐기물이거나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우범소질자로 남게 될 것이란 담론화 작업도 뒤따른다.

이번 강의를 듣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의 폭이 '뚜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푸코가 이미 훌륭한 설명을 예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푸코는 푸코 나름대로 자신이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민과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박정수 선생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강의에서 푸코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나 강의 곳곳에서 푸코의 문제의식을 초과하는 지점도 눈에 띄었다. 그러니 이 강좌는 박정수 선생님이 『비마이너』,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활동했던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치열하게 장애차별문제에 맞서 사유했고, 그 과정에 푸코라는 꽤 쓸만한 연장을 끌어들이는 결과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장애계의 어느 누구도 너무 민감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상윤이 사건'<sup>1)</sup>에 대해 다소 과감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상윤이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 부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그들의 언어, 사고방식에 대해, 그들의 충동과 정서에 대해, 그들의 도덕감과 윤리의식에 대해 재판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고, 깊

은 고민과 자기 성찰의 언어로 대중들에게도 알려 줘야 했다. 그리고 발달장애 1급인 이 씨가 상윤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비마이너』는 상윤이 사건 공판을 밀착 취재하여 그 재판이 발달장애인에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장애인권의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보도해야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진솔한 기고문을 싣는 노력도 필요했다. 앞뒤 안 가리고 쏟아지는 혐오의 폭풍에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해는 하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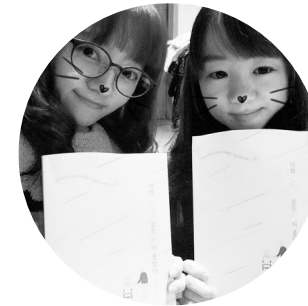
이런 문제제기는 이론만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반대로 현장 투쟁만 '빡세게'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노들장애학궁리소와 『비마이너』라는, 이론과 현장이 가장 치열하게 공존하는 공간에서 장애 이슈를 단단하게 움켜잡았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참 혼자 듣기 아까운 강의였다. 못 들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 『비마이너』지면에서 강의안을 연재하고 있다. 연재 제목은 살짝 바꿨다. 내가 볼 땐 이 강좌는 장판에서 푸코를 읽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푸코를 동료 삼아 함께 장애를 읽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연재 제목은 "푸코와 함께 장애 읽기"다. 궁금한 사람은 지금 접속하라. 단, 매회마다 스크롤 압박이 좀 있으니 각오는 단단히!

[노들 책꽂이]

## '대단하지 않은' 여행을 담은 대단한 이야기

<너와 함께한 모든 길이 좋았다>



이현아

노들인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노들과 함께하니 시간이 더욱 세차게 가는 느낌이에요...

장애인에게 여행, 특히 해외여행은 당사자조차 '그림의 떡' 혹은 '배부른 소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길이 좋았다>(박윤영/채준우 저, 뜨인돌)의 두 저자는 '감히' 그 꿈을 꾸라고 우리의 등을 떠민다.

저자 중 한 명인 윤영과 나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십대에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관심분야도, 자라온 환경도 많이 달랐지만, 내 친동생마저 "누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며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닮은 점이 많았다. 즐거울 것도, 고민할 것도 많았던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경험들을 가감 없이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서울과 순천이라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만큼 당시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일은 머나먼 이야기였지만, 매일 밤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라인 채팅을 하곤 했다. '버디버디'에서 '카카오톡'으로 수단이 바뀌고, 마음만 먹으면 얼굴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제가 어두운 것(?)이 되었을 뿐 우리의 시시콜콜한 수다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에, 윤영과 애인 준우가 쓴 책을 냉철한 제 3자의 입장에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유럽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 5개국 10개 도시에 직접 다녀온 것 마냥 설레고, 화나고, 피곤하고, 그리웠다.

"...나에게 전동 휠체어는 첫 외출, 첫 여행은 물론이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자립할 수 있게 했으며, 해외 연수의 꿈을 실현해 주었다. 이동 수단이 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존엄의 상징이었으며, 내게 자신감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였지만 배낭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만약 여행 중 100kg이 넘는

<sup>1)</sup> 2014년 1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아무개 씨(당시 18세)가 만 1세 아이 상윤이(가명)를 3층 옥외 난간으로 데려가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 대법원은 이 씨가 심신상실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전동 휠체어가 멈춰버린다면? 아찔하다. 그대로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동 휠체어는 편리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조용한 시한폭탄과 같았다.”**

무엇보다 나를 자유롭게 해 주지만 동시에 그 속을 가장 알 수 없는, 소통이 가장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전동휠체어란 녀석 외에도, 불의의 사건과 사고, 여행 비용,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다. 지난 학기에 야학 수업을 하면서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며 (아일랜드에 가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여행을 꿈꾸는 학생들은 소수였으며, 여행을 가기 싫다거나 어떻게 가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 이유들에 반론을 제기하며 “그래도 해외여행은 도전해볼 만한 것”이라고 설득할 수는 없었다.

나 역시 운이 좋아 미국에 몇 년 사는 동안 미국의 도시들, 근처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

들 수 있었지만, 막상 가본 곳이라고는 손에 꼽았다. 그마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 친구나 가족의 손에 이끌려 가지 못해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무게가 꽤 무거웠던 것 같다. 책은 좋은 사람과의 여행은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언정 극복할 용기를 가질 만한 일임을 충분히,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한국에선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곳에선 길거리에 앉아 밥을 먹거나 책을 읽고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떠는 모습들이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고 보낸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윤영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때도, 길을 갈 때도 자기를 보면 이런 ‘것’이 왜 여기에 나타나며 불편해하는 것만 같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지금 런던의 한 골목에서 ‘길을 막고 있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겨진**



▲ 두 페이지 가득한 스위스 융프라우의 실원 사진과 함께 “나는 멈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파랗고 새하얀 세상이 너무나 황홀해서, 가까워진 태양이 너무나 따스해서.”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윤영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펴 보이고 있다.

**것에 감동하고 있는 것 같다.”**

시선에서 자유로운 경험은 정말 짜릿하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하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는 느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는 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사회. 외국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투쟁의 역사를 통해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일 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닌 곳으로 가야만 그러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진다.

**“준우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다.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모든 순간을 함께 경험하며 감정을 나누기에, 말하지 않는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부정적인 감정은 외면하려던 노력을 집어치우고, 계단에 대고 함께 욕을 쏟아낼 수 있게 되자 우리의 파리 여행은 비로소 솔직하고 즐거워졌다.”**

**“저들이 어떤 말을 지껄여도 상관없었다. 내일은 복도에 타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나를 기차에 태우게 할 작정이었다.”**

**“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삶을 산다. 그런 한계 앞에서 포기하는 것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르다. 나처럼 똑같이 포기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더구나 해외여행은 좀처럼 오기 힘든 기회다. 나는 그에게 손톱만큼의 후회라도 남길까 조마조마한데,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여행 내내 모처럼 나서는 일이 없었다.”**

물론 그들의 45일간의 유럽 여행이 자유롭게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이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무례한 직

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낙후한 시설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했으며, 사소한 듯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로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저자들은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솔직하고 꾸밈없이 담아냄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을 낯선 여행지에 초대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속 은밀한 대화에도 초대한다.

**“이해를 구해야 하고, 수많은 설명을 거듭해야 했으며, 순전히 직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여정이 좌지우지됐다. 불안하다.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피곤한 여정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자주 부딪쳐야 하는 멈출 수 없는 길이다.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호흡기를 차고 있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생경한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우린 떠나야 한다.”**

변수가 많아 불안하고 피곤한 여정이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자주 부딪쳐야만 하므로, 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부딪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편의시설, 화장실 등의 접근성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윤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여행 방법은 자신만이 찾을 수 있기에, 그들의 여행 방법이 담긴 이 책이 만능백과사전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점에 넘쳐나는 여행 관련 서적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감히’ 떠날 용기를 내는 어떤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책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단하지 않은’ 여행을 한 한 커플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대단한 책이다.

[노들은 사랑을 실고]

## 너와 나의 연결고리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연결되어 있기에!!! 투쟁!!!

이번 [노들은 사랑을 실고]의 주인공은 노들야학 휴학생 정성룡 님과 2008년도에 잠깐 노들야학에서 신입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2015년까지 활동을 하신 이라나 님입니다. 정성룡 님과 이라나 님은 결혼해서 예쁜 아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 김명학

**명학** 이라나, 정성룡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해서 찾아 와 봤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룡** 저는 노들장애인야학 한소리반 소속이구요, 지금은 주식회사 레드스톤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 야학은 한 2015년도에 다녔고, 개인사정으로 일산직업개발원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니면서 야학을 떠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신혼이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딸에 아버이기도 합니다.

**라나**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 노들야학 신입교

사 활동에 발목만 담갔다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서 지난 2015년까지 활동했었습니다. 신입교사 활동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노들야학에서 '어느 별에서 왔니 상' 까지 받았던 아주 풋풋하고 싱그러운 활동가였지요^^:: (막 요래~) 지금은 성룡 님과 2017년 9월에 결혼해서 올해 2월에 이쁜 아기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명학** 노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성룡** 노들을 알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9살 이후 두 번째 큰 사고가 나면서



3년이란 시간 목발 두 개를 짊으면서 더 이상 일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 장애를 갖고 나서는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학력도 짧아서 써주는 곳도 없더군요. 그래서 노들야학에 검정고시 공부 겸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나**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년시절을 보냈던 강릉에서 이래저래 일을 하다, 2007년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 믿어 상경하게 되었고, 그 당시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상담원 일을 했는데 서울생활이 고되기도 하고, 상담원이라는 직업에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선배이자!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이시며, 지금 노들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홍지연 님의 남편분! 이신 최순규 님을 통해 대학로에 천막을 치고 교육권 투쟁을 하던 노들야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배님은 노들야학을 무척 존경하셨고 그곳에서 제가 활동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데려가셨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왔네요^^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통해 최순규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노들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했을 때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까지 장애인운동이 제 일상의 옷으로 입혀질지 몰랐던 당시라~ 모든 건 절대적 계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명학**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성룡** 라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노들야학 학생이었던 시절 스치듯이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흘러 인연이라 생각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적응하는 일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술을 한잔할 기회가 생겨서 함께했는데, 너무 당차고 당차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나** 오랜 시간동안 폐친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마도 그 절대적 계기가 그 시간에 온 거 같아요.ㅋㅋ 연말에 집에서 마지막 한 해의 날을 조출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으로 "사는 게 어떠세요? 라나 씨~"라고 왔어요. 사실 그 당시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즈음, '좋아요'를 매번 눌러주던 성룡 님이 약간 호감 가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먼저 그렇게 연락 올 것이라 생각 못했었죠. 그리고 저

도 그 당시 장판을 살짝 떠나있는 기분에 울적하기도 했었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일이 이렇게 흘러와 버렸어요. ㅋㅋ 아! 그 절대적 계기가 지금 알고 보니, 모든 폐친에게 '좋아요'를 습관적으로 누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함정이었어요!!

**명학** 아기 연수 소개도 해 주세요.

**성룡** 연수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에 태어났고 라나 배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날기로 마음먹었고 역시나 낳고 보니,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꼭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라나** 사실 아바 성룡 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고 제 장애는 유전이 될 확률이 50%예요. 연대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갖기 전에 오지 지금 와서 어떻게 낳으려고 그러는 거냐며 저희 둘을 대책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한 생명의 탄생에 온갖 걱정과 한심을 해 댔어요.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사실 아이가 제 장애를 유전 받은 것 같다고 진단받았던 순간에도 모진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존재가 소중한 그 소중한 존재에 대한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연수, 그때의 별꿈이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몇 박 며칠로 뼈 주사를 맞아야 해서, 여전히 미안한 일이 많지만, 다른 아기들처럼 잘 웃어주고 잘 놀아주는, 그리고 잘 울어주고 땡강도 부쩍 부리는 정말 고마운 4개월 아가예요 ^^!

**명학** 끝으로 노들에 하고 싶은 말?

**성룡** 저는 금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노들야학을 다녔어요.^^:: 천원도 없어서 급식도 쉽지 않았던 ^^::: 사실 눈치밥 먹기도 하고 그러기 싫어서 계단에 앉아서 좀 많이 우울했던... 그래서 노들에서 하는 무상급식 일일주점은 절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기 도해요.^^ ㅎㅎ 그냥 저같은 사람도 외면하지 말고 꼭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들은 저한테 '투쟁'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특히나 그린라이트가 충격 이었는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척하면서 도로를 점거했잖아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이 사람들 대체 뭐가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언어가 떠오르지 않아 여보야 ^^::도와조!!) 어쨌든 노들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하

**라나** 남편을 좀 돕자면 제가 예전에 신입교사 활동할 때, 함께 활동했던 홍은전 언니가 해 준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야학 학생들이 공부도 게을리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유 없이 저한테 텃새부리는 것 같아서, 철딱서니 없이 제가 막 '나이 들어 하는 공부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은전언니가 "공부도 때가 있는데 그 쉽지 않은 공부를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공간을 찾아오고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뻐한다면 이 곳은 공부 이상으로 벅찬 곳 아닐까?"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저 언어들에 정확하진 않지만, 제게 절대적 계기를 준 명언이었죠.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노들을 참 고마워합니다!!

**성룡&라나** 당신의 해방과 저희의 해방이 연결되어 있기에!!! 투쟁!!!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노들에 유기농 쌀을 보태주는 한살림 일꾼들

한살림수도권실무자연합회 연합지회 정서운 님 인터뷰





“ 이번 호에서는 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야학에 오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노들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주기를 바란다. ”

야학에선 ‘먹는’ 일이 참 뜨겁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잘 챙겨 먹을 돈이 부족한 사람, 간만에 돈이 생겨도 들어갈 식당이 없는 사람... 노들은 밥상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고민이 펼쳐지는 곳이다. 별 특 별할 거 없는 비장애인인 나는 이런 야학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모 생협에 유기농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농약 식재료를 주문하곤 했다. 땅에게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고, 고기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끊고 그러는 게 내 밥상의 약속 같은 거였다. 이렇게 나 혼자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고민을 야학으로 옮겨오면 머리가 아팠다. 야학의 일상과 내가 꾸리는 일상 사이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야학에 식구는 많고 돈은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값 비싼 유기농, 무농약이 웬 말인가 싶게, 여전히 밥 한 끼 못 챙겨먹어 배

고픈 사람이 많은 공간이 야학이었다. 덕분에 나는 자주 소화불량에 걸렸다. 어쨌든 야학은, 이 공간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야한다는 결의 하나로, 2014년 아주 어려운 논의 끝에 급식을 시작했다. 이후 돈이 마구마구 새나가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부터 학생들의 밥값을 마련하기 위해 급식비 마련 후원주점을 열(어야했)었다. 야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 한살림 사람들이 찾아왔다. 2015년 여름이었던가. 꿀맛 나는 포도 상자와 쌀을 들고 한살림 사람들이 야학에 찾아왔다. (나 혼자) 오래전부터 잡고 싶었던 손이었기에 아주 기뻐다. 그리고 그 뒤 언제부터가 한살림 유기농쌀이 매달 60kg씩 야학으로 오고 있다. 야학에서 먹는, 어느 날의 밥은 한살림 유기농 쌀로 지어진 것이다. 인터뷰·정리 : 김유미

**Q** 안녕하세요. 노들바람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살림수도권실무자연합회 연합지회 정서운 실무자라고 합니다. 연합지회에서는 넘버투 부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 연합지회는 2016년 한살림수도권실무자연합회에서 분화되어 창립된지 올해로 3대 째가 되었는데, 저는 작년 2대 때 대의원을 하면서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하는 연합일터살림협의회의 여성실무자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열심히 해서인지 어 느새 부지회장으로 지명이 되었네요.(연합지회의 지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본업은 디자이너로 한살림연합 홍보실에 소속되어 한살림의 물품포장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Q** 어쩌다 한살림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A** 저는 그저 평범한 구직자였습니다. 첫 직장이 NGO단체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환경과 생명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지요. 이런저런 회사들을 전전하다가 백수가 되고 구직하며 다시 이쪽 분야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던 와중에 한살림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살림은 직장으로 먼저 접하고 겪게 되었어요. 벌써 햇수로는 6년차가 되었네요.

**Q** 한살림 실무자협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살림 소개도 같이 해주세요)

**A**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믿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1986년에 시작하여 30년이나 된 유서깊은 조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운동을 통해 생산자의 안정된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한살림 실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맡고 있는 노동자인데, 한살림수도권실무자협의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살림의 시작은 함께였지만 30여년 동안 성장하며 조직이 분화하여 현재는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물품을 만들고 물류, 전산, 홍보 등을 지원하는 한살림연합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조직인 회원생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도권에는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수원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 위치한 이 여섯 조직은 인적 성장을 위해 서로 간에 인사교류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연대하며 조직의 비전을 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조직 간에 동일한 임금과 복지체계를 가질 필요가 생겨다 함께 모여 한살림수도권실무자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살림 규모가 점점 더 성장함에 따라 각 조직별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2016년 연합지회를 시작으로 각 여섯 개의 지회가 만들어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저희에게 매달 쌀 60kg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들장애인야학에 쌀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15년도에 한살림에 쌀 대적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쌀을 각자 한 가마씩 책임소비하자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논의과정에서, 한살림의 가치가 담긴 소중한 쌀인 만큼, 실무자들이 스스로 소비 확대에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모였습니다. 그중 한 곳이 노들야학이었고, 처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하면 좋겠다는 평가도 있었고, 2016년 1월 한살림 수도권 실무자협의회 '연합지회'가 창립하여 1기로 출범할 때 1호 안건으로 한살림 쌀 나눔을 정례화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생산자와 실무자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 한살림 쌀 주 생산지 중 한 곳인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홍천연합회', 쌀 도청처인 '되내들영농조합', 그리고 실무자협의회 '연합지회'가 같이 쌀을 모아 노들야학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연합지회에서는 매년 훈훈카페, 훈훈주점, 나눔장터 등의 행사를 열어 노들야학을 후원하기 위한 쌀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저희에게 오는 쌀을 농사지은 분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쌀 자랑도 해주세요. 맛있어요.

**A**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홍천연합회는 내면공동체, 내촌공동체, 동홍천공동체, 두미반곡공동체, 명동리공동체, 서석공동체, 신시공동체, 어유포공동체, 유치리공동체, 주음치공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국 최초로 농약없는 마을을 선포했던 명동리공동체와 최원국 생산자님을 소개합니다.

##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 선포했던 명동리공동체

### 공동체 소개

명동리공동체는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홍천군 남면의 양덕천을 가운데 두고 5개의 자연부락이 강원도에선 제법 넓은 뜰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1993년 8명의 생산자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을 선포하여 40여명의 생산자가 함께하였으나 현재는 21명의 생산자가 벼, 잡곡, 채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체험관 건립을 시작으로 단오잔치, 대보름행사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의 교류에 앞장서는 모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동체 생산자들의 고품격으로 후계농과 한살림 친환경 필지 보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배려가 필요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 공동체 역사

- 1993년 마을의 선도적인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 1994년 8농가가 모여 친환경 작목반 구성
- 1999년 친환경 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육성사업 유치를 계기로 큰 발전 이룸
- 1999년故박재일 회장의 권유로 한살림 생산공동체 가입 - 벼 80톤 구매
- 2001년 전국 최초로 마을 전체를 '농약없는 마을'로 선포
- 2002년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 (민속자료실, 강의실, 숙박시설 구비)
- 2003년 전통 장담그기 체험장 건립
- 2005년 한살림 홍천생산자연합회 결성

### ·공동체 회원 현황

21농가 / 총 42명 (남성 21명, 여성 21명)

### ·필지현황

논 49,400평 / 밭 31,000평 / 하우스 7,300평(50동)

### ·주요물품

쌀, 잡곡류, 고추, 찹옥수수

### ·원례회의

매 달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수시로 진행

### ·주소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일대

### ·인근명소

홍천강

## 최원국 생산자

- 홍천 명동리공동체 (2012.11.18.)

### 손끝농사로 쫓던 손맛 나는 찹쌀을 내다

농민 최원국. 그가 내민 명함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수식어가 간결하다. 올해 선아흙인 그가 농사를 지은 햇수만 마흔 해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법도 하다. 그중 주관대로 농사한 햇수, 스스로 농사꾼이라 여기며 땅을 일군 해가 서른다섯 해다. 군대 간 3년, 중장비 운전기사 3년을 났다. 그는 난 지 100일 만에 이곳,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왔고 한곳에서 자라 뿌리내렸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500~600평 쌀농사를 지었지만 집에는 늘 쌀이 귀했다. 내다팔기도 빠듯했던 사정을 알기에 스스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다. 젊은 패기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다. 도시에

서 중장비운전을 배웠고 그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일한 지 몇 해, 그는 자기 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짜 농부가 되기로 했다.

농민 최원국은 33,057.851㎡ 논에서 찹쌀을, 밭 6,611.57㎡에서 고추·찰옥수수·들깨·콩

을 내고 있다. 지금은 내외가 거뜬히 감당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1970년대 식량증산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도 농약을 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구토와 두통에 시달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던 때, 이웃에 살던 농부가 무농약농사를 제안했다. 20년 전인 1994년, 여섯 가구가 건강한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합쳤다. 지금은 서른다섯 농가가 된, 홍천생산자연합회 명동리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됐다.



뜻은 좋았지만, 높이 자라는 풀과 늘어가는 벌레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틈만 나면 유기농을 먼저 시작한 곳을 견학했다. 목초액, 현미식초, 청초 발효액 등 제조에 좋다는 것도 실험했다. 하지만 결과는 탐탁찮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 네댓 해 되던 1998년 오리농법을 알게 되었다. 오리농법은 풀이 자라지 않게 했고 벼물바구미 같은 해충도 먹어 없었다. 예상 외로 대풍년을 맞았다. 이듬해인 1999년, 유기농가가 열다섯으로 늘어났다. 정부에서 친환경농업특성화시범마을로 지정했고, 성남 지역의 소비자와 연결해 주어 판

로도 확보했다.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을을 맛있게 잘 영근 쌀을 들고 성남으로 갔다. 그런데 소비자들 시골에서 쌀을 보내오고 있다, 식구들이 얼마 없다는 말을 하며 쌀을 사 주지 않았다. 막막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살림의 박재일 전 회장이 이 마을을 방문해 어렵게 농사지은 벼를 한살림에서 소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초상집이 잔칫집이 된 날이다. 그렇게 해서 2000년부터 한살림과 인연이 닿았다. 살 길을 찾은 최원국 생산자와 유기농부들은 주문을 설득했고, 2001년 명동리는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을 선포했다. 힘든 유기농사를 짓자고 말로만 할 수 없어, 먼저 나서 이웃의 독에 김을 매주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했다. 2003년 조류독감이 돌면서, 우렁이농법을 시작했다. 우렁이는 풀만 먹고 해충을 먹지 않아 염려가 되었지만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았다. 독성이 강한 풀에서 채취한 성분으로 만든 유기 해충퇴치제를 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작물 자체가 튼튼해져 병충해를 거뜬히 견뎌낸 것이다. 화학비료를 쓸 때는 도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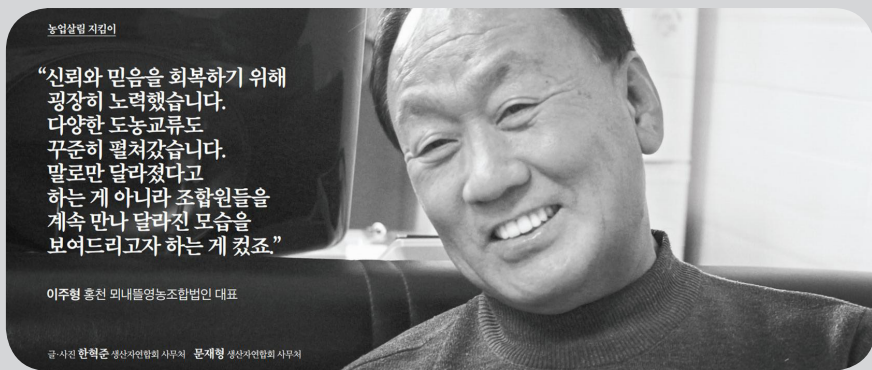
이나 이화병나방 피해가 심했는데 그런 일도 사라졌다.

제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작물들이 기특하다. 어느덧 올해도 찹벼가 노랗게 영글었다. 농사 다 지었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 그는 오늘도 두둑 어딘가로 논물이 흐르지는 않는지 발품을 팔고, 등성듬성 자란 피를 손으로 죽 뽑는다. "유기농은 손끝농사"라는 그의 손이 역세고 야물다. 손끝 농사라 농부의 손맛을 탄 것일까. 햅쌀로 지은 밥 한 수저 뜨니 윤기가 자르르. 고것 참 찹지다.

글·사진 김세진<살림이야기>편집부

한살림연합 소식지 17호에 실린 글입니다

## 홍천 퇴내뜰영농조합 이주형 대표 (2017.12.)



고향이 홍천군 명동리였다. 81년도에 제대 후 잠시 타향살이를 했지만 부모님을 모시려고 홍천으로 왔다.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통 하듯이 관행농사를 지었지만 유기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1996년에 명동리 친환경농업 작목반이 출범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유기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2001년도는 홍천군 명동리에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 선포식도 있었죠. 자연스럽게 한살림을 알게되었지요. 퇴내뜰영농조합법인(이하 퇴내뜰)은 2005년도에 결성되었는데 처음부터 함께 결합해 실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사긴 했지만 짓던 농사를 유기농으로 하는

것도 물론이었죠. 한살림이 이야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중심에 유기농업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40여 명이라고 들었다. 퇴내뜰에서 15년 넘게 함께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표를 맡으면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살피야하는 책임감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퇴내뜰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묻는다.

“오랫동안 실무자들과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를 쓰게 하고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창간준비 3호에 실린 글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6년이 지난 일이지만 2011년도 7월에 물품 사고가 있었다. 머윗대와 김치류 결품을 막으려 출하기준과 다른 물품을 외부에 구입해 한살림에 출하한 사건이었다. 신뢰와 믿음이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었다. 들추기에 아픈 과거지만 이주형 대표에게 그 당시 상황과 생각, 그리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각 부서장들이 이끌어가는 체계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부실했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귀운 한살림의 소중한 자산이 신뢰인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잘못을 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후로 일을 그만두는 직원도 발생했었고 한 달 정도 전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살림연합과 함께 특별점검을 하고 내부적으로 물품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물품공급이 재개되었는데 서로들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광장히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도농교류도 꾸준히 펼쳐갔습니다. 말로만 달라졌다

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계속 만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컸죠.”

실제 퇴내뜰은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고들배기, 오이소박이 담그기 같은 반찬 만들기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가장 인상에 남는 도농교류는 한살림성남용인과 함께한 농지지킴이 활동이라며 말을 잇는다.



“2012년, 퇴내뜰이 농지를 약 800평 임대를 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는데 농지 임대료가 불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증토지가 일반인에게 매매가 될 경우 친환경농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매결연 지역한살림인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들이 농지지킴이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내뜰 실무자들이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고 모내기행사, 벼베기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안내

####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춘학 임태종 임하연 임향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정아 장정환 장지희 장태원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전준규 전형진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동식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상엽 정상욱 정선에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승이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용균 정윤안 정용일 정용훈 정우중 정우준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권 정종화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현찬 정혜림 정혜영 정희진 조경애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봉현 조사랑 조성진 조승하 조아라 조원일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용현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한나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영숙 지혜를 진영옥 진태원 차순정 차종원 채운주 채이배 천선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최귀선 최귀숙 최동호 최미란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선호 최승우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화 최은희 최재민 최재호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주영 최지영 최진희 최찬일 최천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의 한성안 한승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원우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민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임)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 계좌이체 후원인

(주)지암메디테크 ghf한희원 강귀화 강수혜 강영오 고훈복 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김미선 김보라 김선심 김태은 남완승후원금 노들장애인야학 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 류동훈 무기명 박경선 사랑의후원금 서금석 송진현 신승애 안성희 에리스 엠알엠글로벌 여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선실 오정환 원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윤미라 윤수현 윤지형 이자세금:원 이한진 이현우 임재리 재)아름다운동행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정대성 조광배 종로장애인복지관 주식회사씨 착한클라우드 허병권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 물품 후원

- 04월 • 한살림(외내들 협동조합) 쌀 60kg / 식빵공방 빵 14박스 / 국민은행(삼선교점) 비타500 1박스 /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2박스, 시럽 12병, 케이크 / 김재희 초코파이
- 05월 • 한살림(외내들 협동조합) 쌀 60kg / 원성현 쌀 120kg / 이영미 책 29권 / 정해숙 마늘종 1상자 / 고성능협동법인 쌀 10kg / 선감학원추모제 쌀 40kg / 김중분 참외 /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 10봉지 / 장희영 베드커브 2상자 / 조재범 전기파리채 / 조희자 월
- 06월 • 한살림(외내들 협동조합) 쌀 60kg / 흥기원 목사(기쁨교회) 쌀 50kg / 밥통 감자 3상자, 오이 1상자 / 변기남 월 / 성북구푸드뱅크(길음복지관) 빵 7봉지 / 이재현 카프리션 2박스 / 박지혜 비타500 1박스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 NEW BRAND 공생공장

#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탈시설은 단지 시설에 살던 장애인 한 사람이 시설 밖 세상에 적응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탈시설은 한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며 시설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나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바로 그 '어찌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 어지지 않기 위해, 사회라는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 그래요! 탈시설은 그 자체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회변혁 운동인 겁니다.

### <나, 함께 산다>

서중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지음 / 정택용 사진  
2018, 오월의 봄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